Ⓡ 830 연구자료-3 | 2017. 12. |

도서·어촌 마을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박시현 · 정문수 · 민경찬 · 이승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830 연구자료-3

도서·어촌 마을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7. 12.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ISBN | 979-11-6149-129-5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주요 개념 및 연구 범위 ····· 2
3. 선행연구 검토 ····· 3
4. 연구 내용 및 방법 ····· 5

제2장 도서·어촌 마을의 경제활동 실태

1. 태안군 안면읍 중장5리 ····· 7
2.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 25
3.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 46
4. 태안군 안면읍 승언8리 ····· 63
5.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 81

제3장 연구 결과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 99
2. 정책 방향 및 시사점 ····· 107

부록

테마 조사: 다면적 경제활동 기반 공동체 발전을 통한
도서·어촌 마을 공동체 발전 방향 ····· 111

참고문헌 ····· 123

표 차례

제1장

<표 1-1> 도서·어촌 마을 경제활동 변화 실태 주요 연구 항목 ····· 6
<표 1-2> 도서·어촌 마을 사례지역 현황 ····· 6

제2장

<표 2-1> 중장5리 마을의 일반 현황 ····· 8
<표 2-2> 마을의 주요 자산 ····· 9
<표 2-3> 가구 주요 경제활동 ····· 10
<표 2-4> 가구 소득 규모 및 소득 변화 ····· 11
<표 2-5> 가구 지출 규모 및 변화 ····· 12
<표 2-6> 소비활동 비중 ····· 13
<표 2-7> 소비활동을 하기 위한 주 방문지 ····· 13
<표 2-8> 농어업 면적 및 매출액 ····· 14
<표 2-9> 향후 농어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 및 후계자 유무 ····· 14
<표 2-10> 은퇴 시 농지(어장) 계획 ····· 15
<표 2-11> 주민의 농어업 외 별도 경제활동 의향 ····· 15
<표 2-12> 농어가의 6차산업 항목별 수행 여부(N=24) ····· 17
<표 2-13> 다면적 경제활동 ····· 18
<표 2-14> 마을 가구별 참여 경제조직 ····· 19
<표 2-15> 중장5리 마을 가구별 마을활동 항목별 참여 수준 ····· 19
<표 2-16>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가정경제 도움 정도 ····· 20
<표 2-17>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과거(5년 전) 대비 변화 정도 ····· 20
<표 2-18> 마을 공동경제활동 마을 발전 도움 정도 ····· 21

<표 2-19>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긍정적 영향 ····· 21
<표 2-20> 백미리 마을의 가구 유형 ····· 25
<표 2-21> 백미리 마을의 주요 자산 유형 ····· 27
<표 2-22> 백미리 마을의 경제 인프라 ····· 28
<표 2-23> 가구의 주요 경제활동 ····· 29
<표 2-24> 가구 소득 규모 및 소득 변화 ····· 30
<표 2-25> 가구 지출 규모 및 변화 ····· 31
<표 2-26> 소비활동 비중 ····· 32
<표 2-27> 소비활동을 하기 위한 주 방문지 ····· 32
<표 2-28> 농어업 면적 및 매출액 ····· 33
<표 2-29> 농어업 활동 규모 변화 ····· 35
<표 2-30> 농어업 후계자 유무 및 은퇴 시 경영권 활용 계획 ····· 35
<표 2-31> 6차산업 수행 여부 ····· 37
<표 2-32> 다면적 경제활동 ····· 38
<표 2-33> 백미리 가구별 참여 경제조직 ····· 39
<표 2-34> 백미리 마을활동 참여 수준 ····· 40
<표 2-35> 과거 대비 백미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도움 정도 ····· 41
<표 2-36> 백미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가정경제 도움 정도 ····· 41
<표 2-37>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긍정적 영향 ····· 42
<표 2-38> 동호리 마을의 일반 현황 ····· 47
<표 2-39> 동호리 마을 자산 ····· 48
<표 2-40> 가구 주요 경제활동 ····· 49
<표 2-41> 가구 소득 규모 및 소득 변화 ····· 50
<표 2-42> 가구 지출 규모 및 변화 ····· 51
<표 2-43> 소비활동 비중 ····· 51
<표 2-44> 소비활동을 하기 위한 주 방문지 ····· 52
<표 2-45> 농어업 면적 및 매출액 ····· 53
<표 2-46> 향후 농어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 및 농어업 후계자 유무 ··· 53

<표 2-47> 은퇴 시 농지(어장) 계획 ····· 54
<표 2-48> 주민의 농어업 외 별도 경제활동 의향 ····· 55
<표 2-49> 농어가의 6차산업 항목별 수행 여부(N=28) ····· 56
<표 2-50> 다면적 경제활동 ····· 57
<표 2-51> 마을 가구별 참여 경제조직 ····· 58
<표 2-52> 동호리 마을 가구별 마을활동 항목별 참여 수준 ····· 58
<표 2-53>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과거(5년 전) 대비 활성화 정도 ····· 59
<표 2-54>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도움 정도 ····· 60
<표 2-55>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긍정적 영향(N=31) ····· 60
<표 2-56> 승언8리 마을의 일반 현황 ····· 64
<표 2-57> 승언8리 마을 자산 ····· 65
<표 2-58> 가구 주요 경제활동 ····· 66
<표 2-59> 가구 소득 규모 및 소득 변화 ····· 68
<표 2-60> 가구 지출 규모 및 변화 ····· 69
<표 2-61> 소비활동 비중 ····· 70
<표 2-62> 소비활동을 하기 위한 주 방문지 ····· 70
<표 2-63> 농업 면적 및 매출액 ····· 71
<표 2-64> 향후 농어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 ····· 72
<표 2-65> 은퇴 시 농지(어장) 계획 ····· 72
<표 2-66> 농어가의 6차산업 항목별 수행 여부 ····· 74
<표 2-67> 다면적 경제활동 ····· 74
<표 2-68> 마을 가구별 참여 경제조직 ····· 75
<표 2-69> 승언8리 마을 가구별 마을활동 항목별 참여 수준 ····· 75
<표 2-70>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과거(5년 전) 대비 변화 ····· 76
<표 2-71>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가정경제 도움 정도 ····· 77
<표 2-72>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긍정적 영향 ····· 78
<표 2-73> 시방리 마을의 일반 현황 ····· 82
<표 2-74> 이수도 마을 자산 ····· 82

<표 2-75> 가구 주요 경제활동 ····· 83
<표 2-76> 가구 소득 규모 및 소득 변화 ····· 84
<표 2-77> 가구 지출 규모 및 변화 ····· 85
<표 2-78> 소비활동 비중 ····· 86
<표 2-79> 시방리의 소비활동을 하기 위한 주 방문지 ····· 86
<표 2-80> 농업 면적 및 매출액 ····· 87
<표 2-81> 향후 농어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 ····· 88
<표 2-82> 은퇴 시 농지(어장) 계획 ····· 88
<표 2-83> 농어가의 6차산업 항목별 수행 여부 ····· 90
<표 2-84> 다면적 경제활동 ····· 91
<표 2-85> 시방리 마을 가구별 참여 경제조직 ····· 92
<표 2-86> 시방리 마을 가구별 마을활동 항목별 참여 수준 ····· 92
<표 2-87> 시방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가정경제 도움 정도 ····· 93
<표 2-88> 시방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과거(5년 전) 대비 변화 ····· 93
<표 2-89> 시방리 마을 공동경제활동 마을 발전 도움 정도 ····· 94
<표 2-90>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긍정적 영향(N=50) ····· 94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도서·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에 대한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으로 2015년에서 2019년에 이르는 5년 중장기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차년도 연구는 전체 연구의 설계 및 변화 실태 파악을 위한 도서·어촌 마을의 여건 분석 및 유형화를 시도하고, 사례지역에 대한 개괄적 현황 분석을 추진하였다. 2차년도 연구는 어항이라는 도서·어촌 마을의 공간적 특성에 기반한 유형화 및 물리적인 정주 공간의 파악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올해 3차년도 연구는 도서·어촌 마을의 경제활동을 파악하였다.

그동안 농어촌 마을 변화와 관련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농촌 중심인데다 도서·어촌 마을의 경우 농어촌에 일부 통합되어 파악되는 수준에 그쳐 도서·어촌 마을의 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농어촌 통합 연구로는 어촌 마을만의 독특한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서·어촌 마을의 여건과 변화 요인에 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어촌 마을의 유형에 따른 경제활동 변화 실태를 실증분석하여 도서·어촌 마을 주민의 소득 향상 및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 및 지원책을 발굴하는 데 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도서·어촌의 경제적 변화 여건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도서·어촌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어업 경제활동, 비어업 경제활동,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도서·어촌 마을의 경제활동을 조사하고 변화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도서·어촌 마을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분석하여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며, 정책적 시사점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주요 개념 및 연구 범위

□ 어촌 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어촌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은 단순한 공간적 범위를 넘어서서 마을 주민과 마을공동체를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으로 일종의 지역사회공동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촌 마을은 기본적으로 어촌의 법적 개념을 준거로 삼되 그에 국한되지 않고, 마을의 공간적·사회적 성격을 포함시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과 구별되는 도서·어촌 마을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농촌과의 비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어항의 소재와 농어가 비율을 통해 도서·어촌 마을의 모집단을 구성하여 유형 구분을 시도하였다. 전국 74개 연안시·군 가운데 광역시를 제외한 52개 연안시·군 읍·면·동에서 국가어항, 지방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목록을 추출한 168개 읍·면·동을 사례 마을 추출을 위한 기본 모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농어가 비율을 통해 상대적으로 어업 성격이 짙은 전형적인 도서·어촌 마을과 상대적으로 농업 성격이 짙은 반농반어 도서·어촌 마을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상위 30%, 하위 30% 지역을 추출하여

총 100개 읍·면·동이 대상).

결과적으로 도서·어촌의 독특한 특성을 감안해 도서·어촌 마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전형적 도서·어촌 유형'은 어가인구 비율이 높으며 어업 성격이 강한 지역이다. '경제다각화 유형'은 관광 등 다채로운 경제활동을 모색하는 지역이다. '어가 증가 유형'은 귀어·귀촌 등 신규어업인 증가로 인한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다. '어가 감소 유형'은 어가인구 및 어업의 감소세가 뚜렷한 지역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마을 갈등 유형'은 마을 공동체 조직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 어촌 마을의 경제활동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서·어촌 마을의 경제활동이란 주민들의 개별 어업 경제활동 및 어촌계 등 어촌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수행되는 경제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어업과 관련성은 없으나 주민 또는 공동체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경제활동도 도서·어촌 마을의 경제활동 범위에 포함한다.

3. 선행연구 검토

3.1. 주요 선행연구

도서·어촌 마을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어업 및 어업기술의 변화나 관광지화에 따른 지역 변화과정을 일별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며, 마을 단위보다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박금화(1987)의 연구는 1970년대 이후 김 양식 확대에 따른 촌락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양식기술의 개발과 보급, 생산성 증대에 따라 생산수단인 어장을 둘러싼 제도, 주민 전략 등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광순(1975)의 연구는 어업 유형별

어촌계의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어촌계가 어촌의 사회경제구조라는 시각에서 어촌별 생산력 발전, 분업 전개, 자본 축적에 따라 존립, 변질, 분해로 변화·해체된다고 제시하였다. 민상기(1998)의 연구는 어촌계의 연안어장 점유와 이용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어장의 공동체적 이용과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어촌계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근식·김준(1993; 1998)의 연구는 공동어업 및 양식어업의 개별화를 살펴보았으며, 김준(2006)은 어업기술의 변화와 마을 공동체 측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박정석(2001)의 연구는 어업의 변화과정에 대한 어촌계의 적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어촌 마을은 사회적, 경제적, 의례적 관계가 중층적으로 결합된 공간이며,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규범 및 가치체계를 통해 공동체의 정서적 연대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송경언(2002)의 연구는 제주도의 어촌 관광지화 과정과 공간이용의 전개양상과 그 변용을 밝히고 있다.

도서·어촌 마을의 경제다각화 및 6차산업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어촌 6차산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주민의식조사연구 및 사례연구, 관리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임관혁 외(2014)는 어촌 주민의식조사를 통해 어촌형 6차산업 적용방안 및 과제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 박상우 외(2015)는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 추진과 관련한 사후 운영·관리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김용태(2014)의 연구는 어촌 6차산업화 성공사례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으며, 손은일(2014)은 어업 6차산업화 전략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다.

도서·어촌 마을의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선행연구는 어촌의 공유자원의 자율적 관리와 사회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정림(2014)의 연구는 마을어장의 특성과 사회경제구조, 사회관계를 분석하여 어촌 마을의 사회적 경제를 밝히고 있다. 이정림(2016)의 연구는 공유자원의 자율관리방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의 조건을 분석하였다.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들은 어장의 공동점유를 근거로 하여 어촌계를 봉건제적 소여, 이른바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하나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동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의 이행에 따라 어촌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도서·어촌 마을을 기존 어촌사회의 어업생산기능으로 축소하여 바라보고 있으며 도서·어촌 마을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층적인 변화 양상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주로 마을 단위의 자족적 변화과정에만 주목하고 있는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생산중심기능으로부터 다기능화되고 있는 어항의 기능 확대와 그에 따른 어촌 경제의 변화와 도서·어촌의 기능 다양화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서·어촌 마을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진행하고자 가구, 집단,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탐구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서·어촌 마을의 일반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도서·어촌 마을의 변화와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 분석과 도서·어촌 마을의 경제활동 및 사업에 관한 사례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농림어업총조사 등 통계적 자료를 활용한 도서·어촌 마을의 일반 현황 및 경제활동 현황 및 변화 양태 파악하였다.

도서·어촌 사례 마을의 경제활동 변화실태를 파악하였다. 일반적인 산업구조, 농어업소득 및 일자리, 농어업 연관 산업 등 마을의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살펴보았다. 또한 마을 경제활동의 실태 및 변화를 파악하였다. 마을 경제활동의 주요 내용, 운영주체, 추진방식 및 추진체계를 살펴보고, 마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적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표 1-1〉 도서·어촌 마을 경제활동 변화 실태 주요 연구 항목

구분	내용
어업경제	어가경제, 어업과 연계된 특화산업
비어업경제	도서·어촌 마을의 2·3차산업, 비어업 일자리
경제활동 다각화	어촌 기반의 6차산업화, 어촌체험마을 등
정책적 시사점	도서·어촌 마을의 6차산업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및 일자리 창출 도서·어촌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소득사업 지원 정책 개선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전국 단위 통계자료 분석, 사례 마을 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연구에서는 도서·어촌 마을의 여건 변화 및 경제적 활동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경제 다각화, 6차산업화,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전국 단위 통계자료 분석은 선행연구 결과 및 어가경제조사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어가경제 실태 및 도서·어촌 마을의 어가경제 여건을 파악하였다. 특히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2015)를 활용하여 도서·어촌 마을 경제 실태를 분석하였다.

사례 마을은 2차년도에 선정된 마을 사례지역을 유지하되, 도서 마을의 독특한 경제활동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마을 1곳을 변경하였다(울진군 죽변면 죽변2리→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이수도).

〈표 1-2〉 도서·어촌 마을 사례지역 현황

지역	행정리	특성
태안군 안면읍	승언8리	어촌계 및 주민 간 갈등관계 심화
	중장5리	다양한 방식의 경제다각화 활동 모색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전형적인 도서·어촌마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신규 어업인 증가 등 활성화 움직임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어가 비율 감소 및 마을 발전 정체

제 2 장

도서·어촌 마을의 경제활동 실태

1. 태안군 안면읍 중장5리

1.1. 중장5리 마을 경제의 일반 현황

1.1.1. 중장5리 마을의 경제적 특성

중장5리 마을의 가구 수는 전체 75가구이며, 이 가운데 어촌계원인 가구는 35가구이다. 어촌계원 중 65세 이상이 50%를 넘어 현재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가구당 인구는 2명이다. 전체 마을인구는 130명이며 이 가운데 어촌계원이 75명이다. 귀어귀촌을 통한 인구 증가는 미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이주하고자 하는 인구는 많으나 지역 특성상 부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촌계의 자녀 승계로 인한 이주에 있어서도 주거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귀어에서도 어촌계 가입에 있어 가입부담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이 한 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업운영을 위해서 가두리시설을 운영하는 어촌계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

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략 3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1〉 중장5리 마을의 일반 현황

구분	중장5리(n=40)
가구 수(호)	75
가구당 인구(명)	2.00
인구(명)	130
독거가구(호)	5
고령화율(%)	50

주: 주민설문조사 결과.

1.1.2. 마을 자산 및 경제 인프라

중장5리 마을은 지리적으로 안면도의 우측 연안으로 천수만과 마주하고 있다. 대야도항을 중심으로 마을의 북쪽으로는 내포항, 남쪽으로는 고남리와 맞닿아 있다. 이끼가(也) 많은(大) 섬(島)이라는 대야도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장5리 마을은 도로로 연결은 되어 있으나 엄밀히는 섬이며, 마을 맞은편 대야도항 바로 앞은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는 뒷섬이 있다. 중장5리 마을의 주요한 자연생태자산은 항과 갯벌에서 나오는 수산자원이다. 우럭, 박대, 가자미, 병어, 고등어 등의 어류와 백합, 바지락, 굴, 소라 등 패류, 낙지가 대표적인 중장5리 마을의 수산자원이다. 대야도항은 어민들의 경제활동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낚시객을 활용한 유어낚시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갯벌은 중장5리 마을 주민의 마을 어장 기능을 수행하여 주민의 주된 생산소득기반이 되며, 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 대야도항으로부터 북쪽 방향의 연안 도로에는 데크와 쉼터가 있으며 연안으로는 갯벌체험장이 조성되어 있다. 중장5리 마을의 무형자산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개최하는 음악회와 노래자랑 등이 있어 마을의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표 2-2〉 마을의 주요 자산

자산 유형	주요 자산
자연과 생태	수산자원(우럭, 박대, 가자미, 병어, 고등어, 바지락, 백합, 굴, 대죽, 소라, 낙지 등), 대야도항, 갯벌, 데크, 뒷섬
무형자산	마을축제(음악회, 주민노래자랑, 외국인노래자랑)

자료: 마을 조사 결과.

중장5리 마을의 대표적인 경제인프라는 어촌체험마을시설과 6차산업을 위한 특화센터가 있다. 어촌체험마을시설은 체험객들과 마을 방문객들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주말에는 관광객 및 낚시객들의 증가로 주차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주변도로에 주차할 정도이다. 반면 6차산업 특화센터는 2006년 건립되었으며, 농어촌 체험휴양을 위한 목적으로 농수산물 가공 활어직판장 및 식당을 갖추고 있으나 어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된 것에 비해 활용이 미흡하다.

마을 내 상업시설로는 식당 1개소, 소매점 2개소이며 숙박시설로는 민박 2개소와 다수의 펜션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특화된 상업단지 형식은 아니며, 체험객 및 낚시객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대부분이다. 펜션의 경우에는 주로 귀촌인들이 임대를 주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어촌계원 등 마을 주민의 펜션 운영도 증가하고 있다. 중장5리를 찾는 관광객은 많으나 관광객의 상당수가 상업화된 마을을 좋아하지 않고 있어 상업시설이 발달되지는 않았다. 마을 뒤쪽의 폐교 부지는 창조마을만들기사업으로 마을이 부지를 공용으로 매입하였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1.1.3. 중장5리 마을 주민의 경제특성

중장5리 마을 주민의 주요 경제활동은 농림어업이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중장5리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요 경제활동은 농림어업이 88%, 자영업(소도매, 요식업 등)이 8%, 사무/경영/관리 활동이 4%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에 있어서 어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은 소규모 경작지를 유지하고 있고 소수의 주민들이 비교적 중규모로 경작하고 있다.

〈표 2-3〉 가구 주요 경제활동

단위: %

구분	중장5리(n=25)
농림어업	88.0
주부/학생/무직	0.0
자영업(소도매, 요식업 등)	8.0
사무/경영/관리	4.0
생산/기능/노무직	0.0
판매/영업/서비스직	0.0
전문/기술직	0.0
농림어업과 관련된 경제활동	0.0
자유직	0.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중장5리 마을 주민의 연간 소득 규모는 1,001만~2,000만 원 가구가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5,001만~1억 원 가구가 24.0%로 많았다. 중장5리 마을은 연간 소득 규모가 3,0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52.0%로 다른 어촌 마을에 비해 비교적 소득이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5년 전과 대비한 가구 소득 변화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68.0%로 가장 많았으며 '소폭 감소하였다(연 500만 원 내외)'가 28.0%로 조사되었다. 중장5리 마을은 소득 규모에 있어서 과거 5년 전과 비교해 대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일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감소 소득원은 농어업소득(20.0%)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득에 대해 대부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72.0%)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소폭 감소(20.0%)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표 2-4〉 가구 소득 규모 및 소득 변화

단위: %

구분		중장5리(n=25)
가구 연소득 규모	500만 원 이하	0.0
	501만~1,000만 원	8.0
	1,001만~2,000만 원	**32.0**
	2,001만~3,000만 원	8.0
	3,001만~4,000만 원	12.0
	4,001만~5,000만 원	12.0
	5,001만~1억 원	**24.0**
	1억 원 이상	4.0
5년 전 대비 소득 변화	크게 감소함(1,000만 원 이상)	0.0
	소폭 감소함(500만 원 내외)	**28.0**
	큰 변화 없음	**68.0**
	소폭 증가함(500만 원 내외)	4.0
	크게 증가함(1,000만 원 이상)	0.0
	잘 모르겠다	0.0
5년 후 소득 변화 전망	크게 감소할 것	4.0
	소폭 감소할 것	**20.0**
	큰 변화 없음	**72.0**
	소폭 증가할 것	4.0
	크게 증가할 것	0.0
	잘 모르겠다	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중장5리 마을의 가구 지출 규모 및 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총지출은 1,001만~2,000만 원 가구가 3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1,000만 원 이하 가구와 2,001~3,000만 원 가구로 24.0%를 차지했다. 가구 총지출 규모가 3,0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응답의 16.0%를 차지했다. 과거 5년 전 상황과 비교해서는 대부분 가구 소비 지출 규모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76.0%), 일부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생활 여건 역시 거의 대부분이 과거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나빠졌다(80.0%)고 생각하고 있다.

〈표 2-5〉 가구 지출 규모 및 변화

단위: %

구분		중장5리(n=25)
가구 총지출	1000만 원 이하	**24.0**
	1,001만~2,000만 원	**36.0**
	2,001만~3,000만 원	**24.0**
	3,000만 원 이상	16.0
5년 전 대비 지출 변화	크게 감소함	0.0
	소폭 감소함	12.0
	큰 변화 없음	**76.0**
	소폭 증가함	12.0
	크게 증가함	0.0
	잘 모르겠다	0.0
소비생활 여건 변화	과거에는 나빴지만 지금은 좋아졌다	4.0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다	12.0
	과거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나빠졌다	**80.0**
	과거에도 나빴고, 지금도 나쁘다	4.0
	잘 모르겠다	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중장5리 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은 소비활동 비중을 두는 항목은 의료비(진료, 약품 구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소비활동 비중에 있어서 의료비는 48.0%로 1순위로 꼽혔다. 2순위와 3순위는 모두 주거비(월세, 전기세, 난방비)를 들었다(42.0%). 대야도 마을 주민들이 소비활동을 위해 주로 방문하는 곳은 해당 면소재지가 84.0%로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태안 안면읍은 비교적 근교에 위치하며 상업시설이 밀집한 상당히 발전한 면소재지로 대부분의 소비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 소비활동 비중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생활비(식료품, 의류 구입, 이발 등)	28.0	40.0	24.0
주거비(월세, 전기세, 난방비 등)	12.0	40.0	44.0
의료비(진료, 약품 구입 등)	48.0	4.0	8.0
문화/여가(여행, 취미, 영화관람 등)	4.0	12.0	8.0
교육비(자녀 학자금, 학원비, 직업훈련 등)	8.0	4.0	0.0
교통/통신비	0.0	0.0	12.0
기부/헌금(사회단체, 종교단체 기부 등)	0.0	0.0	0.0
부채상환	0.0	0.0	4.0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표 2-7〉 소비활동을 하기 위한 주 방문지

단위: %

구분		중장5리(n=25)
소비활동을 하기 위한 주 방문지	해당 면소재지	84.0
	해당 읍소재지	0.0
	해당 마을 및 인근 마을	12.0
	인근 면소재지	4.0
	인근 중소도시	0.0
	서울, 부산 등 대도시	0.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1.2. 중장5리 마을의 경제 현황

1.2.1. 농어업 활동의 실태

중장5리 마을의 농어업 면적 및 매출액은 5년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농업의 경우 매출액이 143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 또한 5년 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에서는 어업으로

인한 소득이 비교적 증가하고 있었는데 어장환경정화사업 등으로 패류 등의 양식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량 증가 및 판매로 인한 지역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었다.

〈표 2-8〉 농어업 면적 및 매출액

단위: 평, ha, 만 원

구분			5년 전	2016년
농업	면적	총 영농 면적	2,657	2,657
		자가 영농	2,543	2,543
		임차 영농	114	114
	매출액		1,643	1,500
어업	면적	총 어장 면적	52	52
		개인 어장	2	2
		마을 어장	50	50
	매출액		3,009	3,009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향후 농어업 활동 규모 확대에 있어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확대 발전 또는 축소 의견이 일부 있었다. 현재 중장5리 마을의 생산력은 노동력의 약화로 차츰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 환경의 개선효과로 현재 상태의 유지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파악되었다.

〈표 2-9〉 향후 농어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 및 후계자 유무

단위: %

구분		중장5리(n=24)
농어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	확대/발전시키고 싶다	4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92
	현재보다 축소할 것이다	4
	모두 그만두고 싶다	0
	잘 모르겠다	0
	합계	100
영농어 후계자 유무	있다	4.2
	없다	95.8
	합계	1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은퇴 시 농지(어장) 계획은 구체적 계획이 없다가 87.5%였으며 자식에게 상속하겠다가 12.5%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등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다.

〈표 2-10〉 은퇴 시 농지(어장) 계획

단위: %

구분	중장5리(n=24)
구체적 계획이 없다	87.5
자식에게 상속하겠다	12.5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영농을 대행하겠다	0.0
자식에게 맡겨 계속 농사를 짓게 하겠다	0.0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겠다	0.0
현재 농지를 임차하고 있다	0.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농어업 외 별도 경제활동 의향은 없다가 96%로 나타났으며 생산/기능/노무업이 4%로 나타났다. 주민의 노령화 및 어업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어업 외 다른 경제활동 의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1〉 주민의 농어업 외 별도 경제활동 의향

단위: %

구분	중장5리(n=25)
없다	96
농림어업과 관련된 경제활동	0
생산/기능/노무업	4
자영업(소도매, 요식업 등)	0
판매/영업/서비스업	0
농림어업	0
전문/기술업	0
사무/경영/관리	0
자유업	0
계	1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1.2.2. 영농(영어)방식의 시도와 변화

중장5리 마을도 마을 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약화로 마을 어장 운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자체 노동력으로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럭 양식의 경우에는 이주노동자를 통한 노동력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장5리 마을은 수산물의 단순 채취에서 가공으로 수산물 생산방식을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차산업화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특화센터를 구축하였는데, 여기서는 우럭, 가자미 등을 반건조포로 가공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식당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활성화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향후 가공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에서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산물 판매장의 위치가 좋지 않아 인적이 드물어 판매장의 위치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업시설을 확대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어업 안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마을을 유지하는 큰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어업의 다양화에 있어서 낚시어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중장5리 마을만의 특성이 아니 서해 지역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낚시어선의 활성화에 따른 부가적인 경제 활성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낚시어선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계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대야도 어촌계 또한 다양한 형태로 고려하고 있다.

1.2.3. 비농어업 경제활동의 특성 및 변화

중장5리 마을의 6차산업 항목별 수행 여부를 살펴보면 농수특산물 가공품 생산은 83.3%가 수행하지 않으며 8.3%는 영농회사법인 등 조직으로 수행하였다. 농수특산물 직접 판매 또한 62.5%는 수행하지 않으며 영농회사법인 등 조직으로 수행이 16.7%, 기타 12.5%, 개별적 수행이 8.3%로 나타났다. 농어촌 관광은

50%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농회사법인 등 조직적으로 수행이 45.8%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4.2%로 나타났다.

〈표 2-12〉 농어가의 6차산업 항목별 수행 여부(N=24)

단위: %

구분	농수특산물 가공품 생산	농수특산물 직접 판매 (직거래, 직판장, 로컬푸드 등)	농어촌 관광 (숙박, 음식, 체험활동 등)
수행하지 않는다	83.3	62.5	50.0
개별적 수행	0.0	8.3	0.0
영농회사법인 등 조직으로 수행	8.3	16.7	45.8
기타	8.3	12.5	4.2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중장5리 마을 주민의 94%는 다면적 경제활동이 소득 증진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6%는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다면적 경제활동이 소득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면적 경제활동 참여 및 운영 의사는 100%가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여 참여 및 운영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면적 경제활동이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는 있으나 참여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는 현재의 어업소득에의 만족, 또는 주민 고령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3〉 다면적 경제활동

단위: %, 점

구분		비율
다면적 경제활동의 소득 증진 도움 정도 (n=16)	큰 도움이 된다	6.3
	약간 도움이 된다	93.8
	보통이다	0.0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0.0
	합계	100.0
	5점 평균	4.06
다면적 경제활동 참여 및 운영 의사 (n=8)	매우 그렇다(구체적 계획이 있다)	0.0
	그렇다	0.0
	보통이다	0.0
	아니다	0.0
	전혀 아니다(참여할 생각이 없다)	100.0
	5점 평균	1.00
다면적 경제활동 수행 방식 (n=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마을공동수행	0.0
	개별적으로 수행	50.0
	영농어회사법인, 어촌계 등 조직에 참여	50.0
	농수축협 조직에 참여	0.0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수행	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1.2.4. 공동체·기반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의 공간적 범역

어촌계와 마을기업 혹은 마을공동체회사는 동등한 비율로 나타났다. 다른 경제조직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5리 마을은 주민들은 어촌계에 가입되어 있거나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어촌계가 시행하고 있는 6차산업 또는 체험마을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의 경제구조가 간단하고 마을 전체가 어업공동체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장5리 마을 주민들의 마을활동은 마을공동시설 운영, 공동생산활동, 공동어업활동, 마을 공동 6차산업, 기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마을활동에 마을 주민들

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마을공동시설 운영(4.21점)과 공동어업활동(4.13점)은 마을 주민들의 마을활동 참여가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야도 어촌체험마을, 6차산업화 시범사업 등 어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탕이 되는 마을활동 역시 활성화되어 있다.

〈표 2-14〉 마을 가구별 참여 경제조직

단위: %

구분	중장5리(n=25)
어촌계	49.0
지역농수협	2.0
작목반	0.0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0.0
협동조합(농수협 이외)	0.0
마을기업 혹은 마을공동체회사	49.0
산림계	0.0
생협(아이쿱, 한살림 등)	0.0
사회적 기업	0.0
부녀회	0.0
없음/무응답	0.0
합계	100.0

자료:주민설문조사 결과.

〈표 2-15〉 중장5리 마을 가구별 마을활동 항목별 참여 수준

단위: %, 점

구분	전혀 참여 안 함	참여 안 함	보통	참여	거의 매번 참여	모름/무응답	5점 평균
마을공동시설 운영	16.0	0.0	4.0	4.0	**72.0**	4.0	4.21
공동생산활동	20.0	0.0	16.0	8.0	**52.0**	4.0	3.75
공동어업활동	16.0	0.0	4.0	12.0	**64.0**	4.0	4.13
마을 공동 6차산업	0.0	0.0	**40.0**	**40.0**	20.0	0.0	3.80
기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	0.0	4.0	**68.0**	12.0	16.0	0.0	3.40

주: n=25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중장5리 마을 단위의 공동경제활동에 대한 주민 인식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중장5리 마을 주민의 64%가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가정경제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가정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50.0%를 차지하였다.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가정경제활동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없었다.

5년 전과 대비한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 중장5리 마을 주민의 92%가 변함없이 혹은 더 활발해졌다고 평가하였다. 5년 전과 대비하여 변함없이 저조하다는 의견은 8%로 나타났다.

〈표 2-16〉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가정경제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중장5리(n=25)
큰 도움이 된다	28
약간 도움이 된다	64
보통이다	8
도움이 별로 안 된다	0
전혀 도움이 안 된다	0
잘 모르겠다	0
모름/무응답	0
합계	100

자료:주민설문조사 결과.

〈표 2-17〉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과거(5년 전) 대비 변화 정도

단위: %

구분	중장5리(n=25)
5년 전에 비해 활발해졌다	4
5년 전과 변함없이 활발하다	88
5년 전과 변함없이 저조하다	8
5년 전에 비해 침체되었다	0
잘 모르겠다	0
모름/무응답	0
합계	1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중장5리 마을 주민의 96%는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전체 응답의 72%가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마을 발전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24%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보통이다는 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없었다.

〈표 2-18〉 마을 공동경제활동 마을 발전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중장5리(n=25)
크게 도움이 된다	24
약간 도움이 된다	72
보통이다	4
도움이 별로 안 된다	0
전혀 도움이 안 된다	0
잘 모르겠다	0
모름/ 무응답	0
합계	1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중장5리 마을의 공동경제활동은 마을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을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4.0점)과 마을의 생활환경의 개선(3.6점)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마을 브랜드 가치 향상 혹은 홍보 효과(3.5점), 마을 주민 사이의 교류 증대와 관계 회복(3.4점)와 마을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3.1점) 등 마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9〉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긍정적 영향

단위: 점

구분	5점 평균
마을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	**4.0**
마을 주민 사이의 교류 증대와 관계 회복	3.4
마을 노인과 저소득가구 등의 복지 혜택 증가	2.9
마을에 살러 온 귀농어귀촌인이 증가함	2.8
마을의 생활환경이 개선됨	3.6
마을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	3.1
마을 브랜드 가치 향상 혹은 홍보 효과	3.5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1.2.5. 정부 정책과 경제활동과의 관계

중장5리 마을은 과거 김 양식으로 경제 부흥기를 누리다가 방조제 건설로 경제의 중심이었던 김 양식이 쇠퇴하면서 마을 또한 쇠퇴하였다. 2010년 이후 어촌체험마을사업 및 어장정화사업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으며, 마을어장의 회복과 지속적인 종패사업 등으로 쇠퇴한 시골의 어촌마을에서 경제적으로 다시 활성화된 우수 사례지역이다. 마을의 경제활동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어업과 우럭 양식을 중심으로 하는 양식어업이 주요하며 부가적으로 농업생산이 뒤따른다. 80~90%의 소득이 어업에 치중되어 있을 정도로 마을은 어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중장5리 마을은 자연마을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더 이상 마을의 크기가 증가하기는 어렵다. 마을 구성원들의 단합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 경제에 있어 어촌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6차산업, 낚시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 중 6차산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6차산업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우럭양식의 가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의 사업과의 연계 및 홍보 부족, 지속적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미흡하여 현재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마을의 공동생산활동은 여전히 마을의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고 환경정화 등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요 소득원인 마을공동어장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3. 중장5리 마을의 경제활동 전망과 시사점

1.3.1. 중장5리 마을 경제활동의 특성 요약

중장5리 마을의 경제활동의 특성은 소규모 마을로 농업보다는 수산업을 위주로 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부락 형태의 마을구조로 마을이 크지 않아 인구가 작은 편이며 노령화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하다. 어촌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전형적인 어촌 마을로 수산물 생산 위주에서 정부 사업을 통한 마을 안정화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어촌체험마을사업을 통해 어업 외 경제활동으로 도시민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동시에 어업의 활성화도 이루었다. 현재 어촌체험마을사업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꾸준하고 지속적인 어촌체험객 방문을 통한 정부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정화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정부사업 유치를 통해 6차산업을 시작하였으며 마을 경제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반농반어의 일반적 형태보다 어업을 위주로 하는 경제 구조에 따라 마을 어장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농업은 마을 경제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규모의 생산은 몇몇 마을 주민에 의해 경작되며 대부분의 마을 주민은 어업을 위주로 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마을 어업을 위주로 하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마을 어장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 어장정화사업 및 종패사업 등 마을어장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3.2. 중장5리 마을 경제활동의 전망과 계획

중장5리 마을의 경제활동은 마을 경제활동이 어업에 치중되어 있고 어업 중에서도 마을 어장을 이용한 공동생산에 의한 경제 활동이 주요하기 때문에 어촌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어촌계의 역할이 경제적·사회문화적

조직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어촌계를 중심으로 단결력이 매우 높다.

어촌 6차산업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사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들어가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6차산업을 위한 건물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고 가공생산품의 판매가 미흡한 부분은 마을 갈등의 요지가 될 수 있다.

마을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노동력 확보 문제는 난항이 예상된다. 마을의 고령화는 다른 어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수준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럭양식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어촌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귀어·귀촌인의 확대가 필요하나 마을의 지리적 구조로 인한 부지 협소와 땅값 상승은 귀어·귀촌인의 유입을 막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자녀가 마을로 돌아오고 싶어도 거주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노동력 확보는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1.3.3. 정부 정책의 방향

중장5리 마을 사례가 시사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5리 마을의 경제구조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데 비해 이후 추진된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중장5리 마을의 성공을 벤치마킹하여 주변마을로의 확장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안 안면도는 수도권 관광객 유입이 꾸준한 지역으로 어업외소득으로의 경제 활성화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셋째, 마을의 부지 등 여건이 열악하여 마을 크기의 확대 및 상업적 외형확장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촌체험마을 및 다양한 사업이 성공함에 있어서도 마을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상업시설의 유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펜션 등의 숙박시설도 마을내부가 아닌 마을 주변으로 형성되어 마을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2.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2.1. 백미리 마을 경제의 일반 현황

2.1.1. 백미리 마을의 경제적 특성

백미리 마을은 행정리이자 법정리인 단일 자연마을이다. 백미리 마을의 가구 수는 행정조사 및 어촌계장 조사 결과를 통해서 150가구로 파악되었다. 백미리 마을의 전체 인구는 약 370명인데 마을 내 천주교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의 상주 인구를 제외하면 270명이다. 마을 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45%이다.

현재 백미리 마을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어가 수는 130가구다. 이 가운데 전업어가는 거의 없으며 반농반어의 겸업어가가 거의 대다수로 조사되었다. 가족을 구성하지 않은 독거가구는 10가구이며, 귀어·귀촌 인구는 30여 명인데 이 가운데 귀촌인은 10여 명이며 나머지는 U턴 형태의 귀어 인구다. 가구 당 인구는 2.03명이다. 어업 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비어업가구는 10가구이다. 음식점(상회)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3가구, 숙박업을 운영하는 가구가 7가구 있으며 화성 시내에 통근하는 직장인을 둔 가정이 1가구가 있는데, 음식점을 제외하고 모두 어업과 겸업이다.

〈표 2-20〉 백미리 마을의 가구 유형

단위: 호, 명

가구 유형	가구 수
어가(전업어가)	6
어가(겸업어가)	124
비어업가구(자영업 등)	10
기타(귀촌 등)	10
총계	150
가구당 평균인구	2.03

자료: 주민설문조사 및 어촌계장 면담조사 결과.

백미리 마을은 백미항으로부터 내부로 조금 떨어진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백미항에는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및 일부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있다. 마을의 주 진입로의 양쪽으로 주택이 분포되어 있으나 도로는 매우 좁은 시멘트 도로이다. 마을회관을 기점으로 언덕이 있으며 언덕 부근에는 전형적인 어촌취락 형태와는 다른 귀촌인들의 전원주택이 일부 있다. 백미리 마을은 전형적인 반농반어 형태이며, 갯벌로 구성된 마을 어장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마을어업을 하고 있다. 마을 어장은 어촌 특유의 조직인 어촌계의 소유로 백미리 어촌계는 1963년 7월 구평리 어촌계에서 분가한 55명이 백미리 어촌계를 발족하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백미리 어촌계에 속한 어촌계원은 총 124명이다. 이 가운데 123명은 마을어업이며, 1명이 어선어업으로 자망복합이다.

2.1.2. 백미리 마을 자산 및 경제 인프라

백미리 마을은 지리적으로 함박산의 서쪽 사면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만을 마주하고 있다. 마을의 북쪽으로는 송교리와 서신면, 남쪽으로는 궁평리와 접하고 있으며 마을은 백미항이 있으나 백미리 마을은 대부분이 갯벌이기 때문에 어항이 아니라 갯벌인 마을어장으로 가기 위한 주 진입로에 가깝다. 백미리 마을의 가장 주요한 자연생태자산은 갯벌이다. 갯벌은 백미리 마을 주민의 마을어장으로 주된 생산기반이자 소득기반이며, 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원천이다. 마을어장 주 진입로 입구의 양쪽으로는 물을 막아 갯벌 체험객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시설이 있다. 마을 북쪽의 공터에는 방문객들을 위해 마을에서 조성한 연꽃 호수가 있으며, 갯벌과 연꽃 호수 사이에는 오토캠핑장을 조성 중이다.

백미리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으로는 낙지잡이 체험과 사두질이 있다. 백미리 마을에는 인공시설물이 없는 데다가 어촌계가 어업을 위한 마을어장의 야간출입을 제한하는 등 오래 전부터 자율관리를 통한 환경 보전에 힘써 낙지와 바지락 등 마을의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이 때문에 낙지잡이는 백미리 마을 주민들

의 어업 활동을 통한 수익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어촌체험상품으로 연계된 대표적인 어업문화자원이다. 사두질은 V자형 나뭇가지에 그물을 매어 물속에 담갔다가 들어 올려 새우나 고기를 잡는 전통어로방식으로 생활문화재의 하나다. 현재 활성화되어 사용되는 어법은 아니지만, 백미리 어촌계가 사두질 기술을 보유한 어업인과 연계하여 전통어법을 지키는 한편, 전통어업문화와 연계한 체험상품 개발을 검토 중에 있다. 사두질은 갯벌 고랑에서 행해져야 하는 방식이나 백미리 마을은 갯벌과 수산자원이 풍부해 사두질을 통한 어로가 가능하다. 어르신 자서전은 백미리 어촌계에서 계원예술대학과 연계하여 백미리 마을 어르신의 구술생애사를 바탕으로 어르신 자서전을 출간한 사업이다. 어르신 자서전은 백미리 마을 주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북돋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자 백미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역사문화자원의 하나이기도 하다. 어르신 자서전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으며 어촌체험마을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읽어볼 수 있다.

백미리 마을의 무형자산은 백미리 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 축제들이다. 2016년에만 백미리에서 진행된 마을축제는 개판축제, 패션쇼, 유령축제, 백미리영화제 등 4개다. 개판축제는 반려동물을 테마로 개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백미리에 모인다는 콘셉트였다. 패션쇼는 백미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업복, 생활복 등 다양한 복장의 패션쇼를 진행한 것으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한 축제이다. 유령축제는 할로윈데이를 콘셉트로 추진되었으며, 백미리영화제는 백미항 앞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공터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이다. 마을축제는 예산상의 문제로 연속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표 2-21〉 백미리 마을의 주요 자산 유형

자산 유형	주요 자산
자연과 생태	함박산 일원, 경기만, 갯벌, 연밭, 오토캠핑장
역사문화자원	낙지잡이 체험, 사두질(전통어법), 어르신 자서전
무형자산	정보화마을 카페, 마을축제(개판축제, 패션쇼, 유령축제)

자료: 주민설문조사 및 어촌계장 면담조사 결과.

백미리 마을의 경제 인프라 대부분은 백미리 어촌계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어촌계의 공동창고는 리모델링을 통해 수산물판매장으로 탈바꿈시켜 유통판매 시설의 기능을 더하고 있다. 이 밖에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사무실, 어촌계의 영어법인이 운영하는 수산식품가공시설, 정보화마을 교육장을 리모델링한 카페가 있으며, 마을 북쪽으로 오토캠핑장을 조성 중에 있다.

백미리 마을의 공유자원은 백미리 어촌계가 공용으로 활용하는 마을어장이 있다. 백미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어장에서 마을어업행위를 통해 수산물을 채취하며, 채취한 수산물은 어촌계가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일괄 수매하고 있다. 때문에 어촌계원인 백미리 마을주민은 항상 일정한 어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마을어장은 바지락, 새우, 낙지 등의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백미리 어촌계가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조직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이 가능하다. 마을 어장의 면허는 200~250ha로 시작되어 현재는 700ha를 훌쩍 뛰어넘는다.

〈표 2-22〉 백미리 마을의 경제 인프라

구분	경제 인프라
시설	공동창고, 수산물직판장, 수산식품가공시설, 어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교육장, 오토캠핑장
공유자원	마을 어장

자료: 주민설문조사 및 어촌계장 면담조사 결과.

백미리 마을의 상업시설로는 소매점 1개소, 음식점 2개소, 펜션 등 숙박업소가 7개소이다. 백미리 마을의 상업시설은 모두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인근에 밀집하여 입지해 있으며 상업시설의 발달 역시 백미리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와 관련된다. 어촌체험마을의 운영 활성화로 증가한 관광객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시설들이다. 그러나 마을어업을 통한 소득이 높아 관광객 수에 비해 상업시설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어촌계원이 운영하고 있었으나 어업 소득이 더 높은 관계로 운영을 그만두고 지금은 어촌계에서 부녀회 회원을 대상으로 임대해 준 상태이다. 백미리 어촌계도 마을환경의 자율적 관리를

위해 상업시설의 입지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마을 내 카페는 정보화마을 교육장을 리모델링한 'See-sea'라는 카페가 운영 중이며, 이는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및 수원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가로수길의 카페 디자인을 벤치마킹하였다. 이 사업은 화성시가 50%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50%는 백미리가 부담하였다. 백미리 마을의 커뮤니티 시설로는 마을회관, 마을경로당이 있다. 마을경로당은 75세를 기준으로 75세 미만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75세 이상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마을의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마을 주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2.1.3. 백미리 마을 주민의 경제특성

백미리 마을 주민의 주요 경제활동은 농림어업이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백미리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요 경제활동은 농림어업이 76.5%, 주부/학생/무직이 14.7%, 자영업(소도매, 요식업 등)이 5.9%, 농림어업 관련 경제활동이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농반어 형태의 겸업어업이 많은 데다 마을어업을 통해 충분한 경제적 소득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3〉 가구의 주요 경제활동

단위: %

구분	백미리(n=34)
농림어업	76.5
농림어업 관련 경제활동	2.9
자영업(소도매, 요식업 등)	5.9
사무/경영/관리	0.0
생산/기능/노무직	0.0
주부/학생/무직	14.7
합계	100.0

주: 가구에서 70% 이상의 시간을 차지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응답임.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백미리 마을 주민의 소득 구조 및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백미리 마을의 연간 소득규모는 1,001~2,000만 원인 가구 비율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1만~1,000만 원인 가구 비율도 20.6%, 500만 원 이하인 가구도 17.6%로 높았다. 그러나 3,000만 원 이상인 가구 비율도 20.5%였으며 특히 5,000만~1억 원인 가구 비율이 2.9%, 1억 원 이상인 가구도 5.9%로 나타나는 등 고소득 가구의 비율도 높았다. 과거 5년 전과 대비한 가구 소득 변화에 대해서는 '소폭 감소했다(연 500만 원 내외)'는 의견이 38.2%로 나타났으며 '변화 없음'과 '크게 감소했다(연 1,000만 원 이상)'가 각각 29.4%로 나타나 가구 소득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는 의견은 2.9%에 그쳤다. 주 감소 소득원은 농어업 생산소득이 감소(50.0%)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후 소득은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별도 경제활동을 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94.1%로 높았다.

〈표 2-24〉 가구 소득 규모 및 소득 변화

단위: %

구분		백미리(n=34)
가구 연소득 규모	500만 원 이하	17.6
	501만~1,000만 원	20.6
	1,001만~2,000만 원	**29.4**
	2,001만~3,000만 원	11.8
	3,000만 원 이상	20.5
5년 전 대비 소득 변화	크게 감소함(1,000만 원 이상)	29.4
	소폭 감소함(500만 원 내외)	**38.2**
	큰 변화 없음	29.4
	소폭 증가함	2.9
	크게 증가함	0.0
	잘 모르겠다	0.0
5년 후 소득 변화 전망	크게 감소할 것	8.8
	소폭 감소할 것	**58.8**
	큰 변화 없음	14.7
	소폭 증가할 것	11.8
	크게 증가할 것	0.0
	잘 모르겠다	5.9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백미리 마을 주민의 소비 구조 및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백미리 마을의 가구 총지출 규모는 1,001만~2,000만 원 가구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1,000만 원 이하 가구와 2,001만~3,000만 원 가구로 26.5%를 차지했다. 가구 총지출 규모가 3,0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응답의 14.7%를 차지했다. 과거 5년 전 상황과 비교한 가구 소비지출 규모의 변화는 '소폭 증가함' 응답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큰 변화 없음' 29.4%, '소폭 감소함' 20.6%로 나타났다. 소비생활 여건에 대한 응답은 과거에는 나빴지만 지금은 좋아졌다가 6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에도 나빴고 지금도 나쁘다는 17.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다가 11.8%였다.

〈표 2-25〉 가구 지출 규모 및 변화

단위: %

구분		백미리(n=34)
가구 총지출	1,000만 원 이하	26.5
	1,001만~2,000만 원	**32.4**
	2,001만~3,000만 원	26.5
	3,000만 원 이상	14.7
	합계	100.0
5년 전 대비 지출 변화	크게 감소함	5.9
	소폭 감소함	20.6
	큰 변화 없음	29.4
	소폭 증가함	**41.2**
	크게 증가함	2.9
	잘 모르겠다	0.0
	합계	100.0
소비생활 여건 변화	과거에는 나빴지만 지금은 좋아졌다	**64.7**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다	11.8
	과거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나빠졌다	2.9
	과거에도 나빴고, 지금도 나쁘다	17.6
	잘 모르겠다	2.9
	모름/ 무응답	0.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가구의 주요 지출 항목은 1순위로 의료비(38.2%)를 가장 많이 꼽았고, 2순위로는 생활비(52.9%), 3순위로는 주거비(35.3%)순으로 응답했다. 백미리 마을 주민들이 소비활동을 위해 주로 방문하는 곳은 서신면 소재지가 7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화성시 인근의 중소도시가 17.6%, 화성시 시내와 인근 면소재지가 2.9%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백미리 마을 및 인근 마을이라 응답한 주민은 없었는데 외따로 떨어진 백미리의 지리적 입지에 기인하고 있다.

〈표 2-26〉 소비활동 비중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비활동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항목	생활비(식료품, 의류 구입, 이발 등)	26.5	52.9	16.2
	주거비(월세, 전기세, 난방비 등)	23.5	23.5	**38.7**
	의료비(진료, 약품 구입 등)	38.2	17.6	29.0
	문화/여가(여행, 취미, 영화 관람 등)	0.0	0.0	6.5
	교육비(자녀 학자금, 학원비, 직업훈련 등)	5.9	0.0	3.2
	교통/통신비	0.0	2.9	3.2
	기부/헌금(사회단체, 종교단체 기부 등)	0.0	0.0	0.0
	부채상환	5.9	2.9	3.2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표 2-27〉 소비활동을 하기 위한 주 방문지

단위: %

구분		백미리(n=34)
소비활동을 하기 위한 주 방문지	서신면 소재지	**76.5**
	화성시 시내	2.9
	백미리 마을 및 인근 마을	0.0
	인근 면소재지	2.9
	인근 중소도시	17.6
	서울, 부산 등 대도시	0.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2.2. 백미리 마을의 경제 현황

2.2.1. 농어업 활동의 실태

백미리 마을은 주로 쌀과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백미리 마을의 농가 단위 농업활동을 살펴보면 총 경작지 면적은 5년 전 약 10,300평에서 2016년 현재 약 11,600평으로 1,300평이 증가하였다. 경작지 면적의 증가 요인은 임차 경작지 면적의 증대분이며, 같은 시기 자가 경작지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5년 전 약 2,104만 원에서 2016년 현재 약 1,231만 원으로 5년 동안 873만 원의 매출이 감소하였다.

어업 활동의 실태를 살펴보면 어장의 면적은 0.66ha로 5년 전과 변함이 없다. 주민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 어장은 없으며, 0.66ha 모두 마을 어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촌계장 등 마을 리더의 면담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미리 마을의 마을 어장 면적은 700ha로 나타나는데 현지 실사 및 어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마을리더 면담조사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다. 주민설문조사의 결과는 표본 편향 등 조사상의 오류로 판단된다. 주민설문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어업 매출액은 약 1,346만 원에서 약 1,142만 원으로 5년 동안 204만 원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8〉 농어업 면적 및 매출액

단위: 평, ha, 만 원

구분			5년 전	2016년
농업	면적	총 영농 면적	10,304.17	11,604.17
		자가 영농	3,462.5	3,312.5
		임차 영농	6,841.67	8,291.67
	매출액		2,104.35	1,231.25
어업	면적	총 어장 면적	0.66	0.66
		개인 어장	0.00	0.00
		마을 어장	0.66	0.66
	매출액		1,345.83	1,141.67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백미리 마을은 백미리 어촌계를 중심으로 마을어업을 통해 수산물의 공동작업 및 공동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품목은 낙지, 망둑어, 새우 등이다. 마을 주민들이 물때를 맞춰 마을 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하여 어촌계에 판매하면 어촌계가 마을 주민에게 수익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어촌계는 수산물을 체험객 및 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어촌체험마을 및 영어법인을 통해 수산물 가공품의 형태로 판매한다. 어촌계원이 운영하는 식당에 판매하기도 하며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전화판매 및 온라인판매도 겸하고 있다. 어촌계는 영어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마을 노인들이 바지락을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 영어법인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경우에는 마을 어장에서의 어업이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영어법인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다. 영어법인의 경우 낙지꼬치, 간장게장, 새우젓, 새우장을 개발하여 판매를 준비 중이며, 백미리 마을 브랜드를 통해 판매할 예정에 있다. 낙지꼬치의 경우에는 한성기업과 협의 중에 있으며, 간장게장과 새우장, 새우젓은 독신가구 및 레저용으로 개발하여 세븐일레븐, CU 등의 편의점에 입점을 협의 중에 있다.

백미리 마을의 경우 5년 전과 비교해 농어업 활동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다'가 66.7%로 가장 많았으며, '소폭 감소하였다'가 18.5%, '크게 감소하였다'가 7.4%, '크게 증가하였다'가 7.4%로 나타나 큰 변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농어업 활동 규모에 대한 전망에서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가 44.4%, '현재보다 축소할 것이다'가 37.0%, '모두 그만두고 싶다'가 11.1%로 나타난 반면 '확대/발전시키고 싶다'는 3.7%에 불과하였다. 어업은 농업과 달리 마을어업이 어촌계의 소유이고 개인은 계원으로 경영권만 가지고 있는 데다가 고령자가 많아 현상 유지 내지 축소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백미리 마을에서 농어업 후계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25.9%로 다른 마을에 비해 농어업 후계자가 결정되어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은퇴 시 어업 경영권에 대한 의견으로는 33.3%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자식에게 상속하겠다는 의견이 29.6%로 뒤를 이었고,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영

어를 대행하겠다는 의견도 22.2%로 높았다. 자식에게 맡겨 계속하겠다는 답변은 14.8%로 나타났다. 어촌계원만이 마을 어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어업소득 또한 높아 백미리 마을의 어업 경영권의 가치는 매우 크다. 특히 U턴 형태의 귀어인이 많고 자식의 경영권 승계가 많은 어촌계의 특성이 위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29〉 농어업 활동 규모 변화

단위: %, 점

구분		백미리(n=34)
5년 전 대비 농어업 활동 규모 변화	크게 감소하였다	7.4
	소폭 감소하였다	18.5
	큰 변화가 없다	**66.7**
	소폭 증가하였다	0.0
	크게 증가하였다	7.4
	잘 모르겠다	0.0
	5점 평균	**2.81**
향후 농어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	확대/발전시키고 싶다	3.7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4.4**
	현재보다 축소할 것이다	37.0
	모두 그만두고 싶다	11.1
	잘 모르겠다	3.7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표 2-30〉 농어업 후계자 유무 및 은퇴 시 경영권 활용 계획

단위: %

구분		백미리
농어업 후계자 유무	있다	**25.9**
	없다	74.1
은퇴 시 경영권 계획	자식에게 맡겨 계속 어업하겠다	14.8
	자식에게 상속하겠다	29.6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영어를 대행하겠다	22.2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겠다	0.0
	구체적 계획이 없다	**33.3**
	기타	0.0
	합계	100.0

주: 어업 활동에 참여하는 가구(n=34)에 대한 분석.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2.2.2. 영어방식의 시도와 변화

백미리 어촌계는 2005년부터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시작하였다. 마을어장 수산자원의 자율적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자원량 규제, 가격 규제, 조업 규제 등을 2년 동안 강제 시행하여 무분별한 조업 및 남획을 막는 한편 어촌계원들이 조업을 통해 획득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어촌계의 자산으로 삼았다. 단순한 조업 방식에서 벗어나 어장 및 자원의 관리, 경영 개선, 질서 유지 등을 마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하는 점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특징이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백미리 마을이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고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자생력의 밑바탕이 되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함께 백미리 마을은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였다. 실제 당시 화성시는 백미리 어촌체험마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체험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백미리 어촌체험마을로 본격 지정된 이후 10억 원의 투자지원을 통해 어촌체험마을 사무실 및 공원을 건립하였다. 백미리 어촌체험마을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투자금 및 백미리 어촌계의 자산, 어촌체험마을 운영을 통한 체험소득으로 카누·카약·노보트·패들보트, 갯벌마차, ATB, 어린이 물놀이 시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수산물 생산은 백미리 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통해 수산물의 공동작업 및 판매·유통의 주체가 되며, 어촌체험마을을 통해 체험객 및 자매결연을 통한 도·어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백미리 마을은 어촌계의 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김 가공공장, 먹보 영어조합법인은 어촌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해 설립된 영어법인이다. 영어조합법인은 5명 이상이면 설립 가능하기 때문에 어촌계원들이 출자하고 어촌계가 공동출자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먹보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로 영어조합법인의 소득도 증가했다. 영어조합법인사업 가운데 포장지 지원, 정부사업비 보조 등은 어촌계와의 관련

성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도 하거니와 어촌체험마을 관광객 증가로 영어조합법인의 판로 개척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2.2.3. 비어업 경제활동의 특성 및 변화

백미리 마을에서 비어업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10가구로 음식점 2가구, 소매점 운영 1가구와 민박업을 하는 주민 7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화성 시내에 통근하는 직장인을 두고 있는 가구도 1가구 있으나,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업과 겸업이라 마을 차원에서 비어업활동과 관련된 별도 경제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백미리 마을의 6차산업을 수행하는 어가는 농수산특산물 가공품 생산이 3.7%, 농수산특산물 직접 판매가 11.1%, 농어촌 관광이 7.4%로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품 생산은 영어법인, 어촌계 등 조직으로 수행하고 농어촌 관광은 개별적으로 수행, 수산물 직접 판매는 개별적 수행과 조직 수행을 병행하고 있다.

〈표 2-31〉 6차산업 수행 여부

단위: %

구분	농수특산물 가공품 생산	농수특산물 직접 판매 (직거래, 직판장, 로컬푸드 등)	농어촌 관광(숙박, 음식, 체험활동 등)
수행하지 않는다	96.3	88.9	92.6
개별적 수행	0	7.4	7.4
영농회사법인 등 조직으로수행	3.7	3.7	0
기타	0	0	0
합계	100	100	1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백미리 마을 주민의 75.0%는 다면적 경제활동이 소득 증진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25.0%는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다면적 경제활동이 소득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면적 경제활동 참여 및 운영 의사는 82.6%가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여 참여 및 운영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면적 경제활동이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는 있으나 참여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는 현재의 어업소득에의 만족, 주민 고령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백미리 마을은 다양한 비어업 경제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워터파크 조성을 위해 66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이다. 또 계원예술대 창업프로그램과 연계한 어르신 자서전 출간, 개판축제·유령축제·패션쇼 등 다양한 마을축제를 개최하였다. 다양한 비어업 경제활동의 추진에서 핵심은 백미리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마을조직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32〉 다면적 경제활동

단위: %, 점

구분		비율
다면적 경제활동의 소득 증진 도움 정도 (n=4)	큰 도움이 된다	25.0
	약간 도움이 된다	**75.0**
	보통이다	0.0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0.0
	합계	100.0
	5점 평균	4.25
다면적 경제활동 참여 및 운영 의사 (n=23)	매우 그렇다(구체적 계획이 있다)	0.0
	그렇다	8.7
	보통이다	4.3
	아니다	21.7
	전혀 아니다(참여할 생각이 없다)	**60.9**
	잘 모르겠다	4.4
	5점 평균	1.59
다면적 경제활동 수행 방식 (n=5)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공동수행	**40.0**
	개별적으로 수행	20.0
	영농어회사법인, 어촌계 등 조직에 참여	**40.0**
	농수축협 조직에 참여	0.0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수행	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2.2.4. 공동체-기반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의 공간적 범역

백미리 가구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조직은 어촌계로 31.0%이며, 다음으로 지역 농수협 23.0%, 협동조합(농수협 이외) 21.8%이다. 이 밖에도 백미리 마을은 다른 어촌과는 달리 영농/영어조합법인, 작목반,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회사 등 다양한 경제조직을 결성하고 있다. 백미리 마을은 백미리 어촌계가 경제활동의 중심이다. 어촌 마을의 공동체에 기반한 어촌 특유의 조직인 어촌계는 다양한 마을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참여한다. 1963년 7월에 출발한 백미리 어촌계는 다양한 마을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의 신임이 두텁다.

〈표 2-33〉 백미리 가구별 참여 경제조직

단위: %

구분	백미리(n=34)
어촌계	31.0
지역 농수협	23.0
작목반	9.2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9.2
협동조합(농수협 이외)	21.8
마을기업 혹은 마을공동체회사	1.1
산림계	1.1
사회적 기업	1.1
없음/무응답	2.3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백미리 마을 주민들의 마을활동 참여 수준은 매우 높다.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항목에서 마을 주민들은 마을활동에 거의 매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공동시설 운영, 마을 공동 6차산업, 기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은 응답 전원이 거의 매번 참여한다(5점 평균=5.00)고 하였으며, 공동생산활동 4.67점, 공동어업활동 4.32점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4〉 백미리 마을활동 참여 수준

단위: %, 점

구분	전혀 참여 안 함	참여 안 함	보통	참여함	거의 매번 참여함	5점 평균
마을공동시설 운영	0.0	0.0	0.0	0.0	**100.0**	5.00
공동생산활동	0.0	0.0	0.0	33.3	66.7	4.67
공동어업활동	0.0	4.5	9.1	36.4	50.0	4.32
마을 공동 6차산업	0.0	0.0	0.0	0.0	**100.0**	5.00
기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	0.0	0.0	0.0	0.0	**100.0**	5.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5년 전과 대비한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 백미리 마을 주민의 70.6%가 변함없이 혹은 더 활발해졌다고 평가하였다. 저조하거나 침체되었다는 의견은 없었지만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3.5%로 나타났다.

백미리 마을 단위의 공동경제활동에 대한 주민 인식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백미리 마을 주민의 44.1%가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가정경제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가정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50.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부정적인 응답도 41.2%가 응답하여 전체 5점 평균은 2.9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백미리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인 점을 감안하면, 마을 공동경제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고 판단된다. 백미리 마을 주민의 88.3%는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백미리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전체 응답의 61.8%가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마을 발전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26.5%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응답은 2.9%였다. 5점 평균은 3.68점이었다.

〈표 2-35〉 과거 대비 백미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도움 정도

단위: %

항목	백미리(n=34)
5년 전에 비해 활발해졌다	44.1
5년 전과 변함없이 활발하다	26.5
5년 전과 변함없이 저조하다	5.9
5년 전에 비해 침체되었다	0.0
잘 모르겠다	23.5
모름/무응답	0.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표 2-36〉 백미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가정경제 도움 정도

단위: %, 점

항목		백미리(n=34)
공동경제활동의 가정경제 도움 정도	큰 도움이 된다	5.9
	약간 도움이 된다	44.1
	보통이다	2.9
	도움이 별로 안 된다	20.6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0.6
	잘 모르겠다	5.9
	5점 평균	2.94
공동경제활동의 마을 발전 도움 정도	크게 도움이 된다	26.5
	약간 도움이 된다	61.8
	보통이다	2.9
	도움이 별로 안 된다	2.9
	전혀 도움이 안 된다	0.0
	잘 모르겠다	5.9
	5점 평균	3.68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백미리 마을의 공동경제활동은 백미리 마을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마을 주민 사이의 교류 증대와 관계 회복(4.15점)과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4.00점)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마을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3.94점), 마을 노인과 저소득가구 등의 복지 혜택 증가(3.82점)와 마을 브랜드 가치 향상 혹은 홍보 효과(3.82점),

마을에 살러 온 귀농·귀어·귀촌인의 증가(3.56점) 등 마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7〉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긍정적 영향

단위: 점

구분	백미리(n=34)
마을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	3.94
마을 주민 사이의 교류 증대와 관계 회복	**4.15**
마을 노인과 저소득가구 등의 복지 혜택 증가	3.82
마을에 살러 온 귀농어·귀촌인이 증가함	3.56
마을의 생활환경이 개선됨	4.00
마을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	3.47
마을 브랜드 가치 향상 혹은 홍보 효과	3.82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2.2.5. 정부 정책과 경제활동과의 관계

백미리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해양수산부가 2001년 도입한 것으로,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업인의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를 유도하고자 도입한 수산자원관리정책이다. 백미리 마을은 2005년부터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시작하였으며, 백미리 어촌계가 주체가 되어 수산물의 자원량, 가격, 조업시간 등을 규제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다.

2008년 지정된 백미리 어촌체험마을은 지정 이전인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체험마을을 운영하여 왔다. 어촌체험마을은 해양수산부가 2001년부터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 증대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며, 2017년 현재 전국 112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역시 백미리 어촌계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을 영입하여 자체적인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마을 공동경제활동 사업에 역할을 부여하였다.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율관리

어업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을 바탕으로 사두질, 바다낚시, 굴따기, 망둑어낚시, 고동·게잡이, 조개캐기, 낙지잡기, 카약타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은 체험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판매, 자매결연 및 도·어교류, 수산가공품 판매 등 다양한 마을 공동경제활동 사업과 연계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마을 공동경제활동에 백미리 어촌계가 주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영함에 따른 결과이다.

2.3. 백미리 마을의 경제활동 전망과 시사점

2.3.1. 백미리 마을 경제활동의 특성

백미리 마을 경제활동의 특성은 무엇보다 백미리 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마을 공동경제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백미리 어촌계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수산자원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백미리 어촌계원 및 마을 주민의 단합을 이끌어내며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였다. 이후에도 백미리 어촌체험마을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어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영어방식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연간 소득의 60%를 항상 어촌계 자산으로 적립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촌계 예산을 투자하거나 필요할 경우 자체 용역이나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도 하는 등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거나 확대/발전을 위한 활성화가 필요할 경우에 다양한 공모 사업을 신청하거나 행정지원을 추진하는 특징을 보인다. 어촌계 출범 초기 380만 원 가량으로 시작했던 백미리 어촌계는 현재 건물, 토지 등을 합해 공시지가만 80억 원을 웃도는 성공적인 어촌계가 되었다.

한편으로 영어법인 설립을 통해서 수산물 가공품을 개발하고 지역의 대학과 연계한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어촌융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영어방식의 변화에 있어서도 정부나 지자체

가 아닌 백미리 어촌계가 주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서 자생력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보화마을과 어촌체험마을에서부터 영어법인을 통한 수산물 가공품 개발 및 판매,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업프로그램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 백미리 마을은 전통적인 어업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제다각화 시도를 통해 마을 발전을 꾀하고 있다.

성공적인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활성화는 마을로 이주를 원하는 귀어·귀촌인의 증가를 불러왔다. 그러나 어업 및 어촌계의 특성,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못한 채 백미리 마을의 활성화만 보고 찾아 온 일부 이주민들은 기존 원주민과 교류와 소통이 활발하지 못해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실제 원주민과 이주민의 취락은 주 진입로를 공유하고는 있지만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백미리 마을의 귀촌인은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이주한 귀촌인이 다수로 어촌계장에 따르면 귀촌인은 토박이 주민과의 소통이나 친교보다 별도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마을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전한다. 더구나 백미리 마을로의 귀어·귀촌 의향을 타진하는 외지인은 많으나 마을 내 택지나 빈집이 없는 데다 부지 비용이 비싸다. 백미리 마을은 어촌계 특유의 진입장벽을 낮춰 초기 많은 귀어인을 받았으나 귀어한 이주민들이 어촌계 중심의 사업 추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 토박이 주민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해 주민들이 외지인의 전입을 반기지도 않을 뿐더러 최근에는 실제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2.3.2. 마을 경제활동의 전망과 계획

현재 백미리 마을에는 3,000평 부지에 워터파크 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다.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화성시의 예산 지원을 확보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상황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2013년부터 백미리 캠핑장 조성이 추진 중에 있다. 캠핑장 인근에는 자부담 4,000만 원을 들여 연꽃호수를 조성하였다. 정보화마을 사무실은 지역 주민 및 방문객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See-sea’라는 카페를 만들어 활성화시키고 있다. 카페 리모델링은 자부담과 화성시의 비율이 50:50이다.

2.3.3. 정부 정책의 방향

백미리 마을 사례를 통한 정부 정책 방향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마을 공동경제활동은 마을 공동체의 지지와 신임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백미리 마을은 백미리 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대부분의 마을 공동경제활동을 추진하는 데 내부 구성원 간 친밀도가 높아 단합과 협력이 매우 잘 되고 참여도 매우 적극적이라 마을 공동경제활동 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었다.

둘째,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지지와 신임은 마을 주민이 마을 소득의 진전을 체감할 때 뒤따른다는 점이다. 어촌계장에 따르면 백미리 마을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백미리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며 경제적 소득을 주민들이 체감하기 시작하면서 어촌계의 화합과 추진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 공동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이 마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때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추진주체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인 지지가 뒤따를 수 있다.

셋째, 어업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한 다면적 경제활동이다. 백미리 마을의 활성화에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갯벌에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함으로써 어업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깨끗한 환경과 마을 문화의 유지는 어촌체험마을 등 도시민 및 관광객을 백미리 마을로 이끄는 유인요소가 되었다. 한편으로 수산물은 백미리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소개하는 기회로 작용하여 수산물 판매장, 식당, 숙박업소 등으로 다면적 경제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다양한 마을자원을 활용한 다면적 경제활동이다. 백미리 마을은 유명한 명승지나 빼어나게 아름다운 경관 등 다양한 마을자원을 보유한 마을은 아니다. 그러나 마을에 산재한 다양한 마을자원 등을 활용해 다면적 경제활동으로 연계하여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때로 낙후해 보이기도 한 마을 경관이

도시민에게 한적한 시골 어촌의 경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 등 마을 개발에 극히 신중하기도 하며, 마을 어르신들의 자서전 출간을 통해 마을 주민의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마을 역사와 문화를 알려내는 기록으로 재탄생시켰다. 사두질과 같은 전통어법의 체험프로그램화, 빈 부지를 활용한 연꽃호수와 오토캠핑장 조성 등 마을자원의 적극적인 활용과 프로그램화를 통해 다면적 경제활동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마을 공동경제활동은 어촌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백미리 마을은 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귀촌한 외지인과의 관계는 비교적 소홀하다. 귀어·귀촌을 문의하는 사람도 많고, 어촌계의 진입장벽도 낮아 타 어촌계에 비해 상당히 개방적인 백미리 어촌계지만 어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귀촌인이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저해한다는 인식이 많다. 귀어·귀촌인의 증가가 마을 활성화의 단기적 지표는 될 수 있으나, 어촌의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의 지표가 될 수 있다.

3.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3.1. 동호리 마을 경제의 일반 현황

3.1.1. 동호리 마을의 경제적 특성

행정조사 결과에 따른 동호리 마을의 총 가구 수는 124가구이다. 동호리 마을은 자연마을은 1개 부락이지만, 행정적으로는 남부 마을과 북부 마을로 나뉘어 있어 이장이 2명이다. 남부 마을은 54가구, 북부 마을은 70가구이며, 인구는 남부 마을이 103명, 북부 마을이 130명으로 총 인구수는 233명이다. 주민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동호리 마을의 가구당 인구는 1.87명이다. 고령화율은 60.1%로 65세 이상 인구는 140명이며, 독거가구는 70가구이다. 동호리 마을은 동호해수욕장과 동호항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동호해수욕장 쪽으로는 관광객 대상의 식당, 숙박시설, 소매점 등이 일부 있으며, 동호항에는 수산물 가공 영어법인이 있으나 동호리 마을이 아닌 하전마을 소유이다. 주 도로는 마을 어귀에서 주거지역과 해수욕장 진입로로 나뉘며, 주거지역에는 차량 한 대가 지나갈 만한 자그마한 도로가 있다.

〈표 2-38〉 동호리 마을의 일반 현황

단위: 가구, 명, %

구 분	일반 현황
가구 수	124
독거가구	70
가구당 인구	1.87
마을 인구	233
고령화율	60.1

주: 주민설문조사 결과.

3.1.2. 마을 자산 및 경제 인프라

동호리 마을은 지리적으로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고전리와 남쪽으로는 광승리와 맞닿아 있다. 고전리 쪽은 소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으며, 광승리 쪽은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가 위치해 있다.

동호리 마을의 가장 주요한 자연생태자산은 동호해수욕장이다. 동호해수욕장은 찾는 관광객은 마을 주민의 중요한 소득기반의 하나이며, 어촌계의 한정면허 마을어장 역시 동호해수욕장에 위치해 있어 마을 주민의 생산기반이 되기도 한다. 동호해수욕장 해안을 따라 자그마한 소나무 숲이 있는데, 어촌계에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통해 워터파크 시설 혹은 라이프레저 체험시설 건립으로 활용을 원하고 있다. 마을 어장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수산자원은 동죽이 있다. 영광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동호리 마을은 마을 어장이 없는 상태이나, 한

정면허를 획득해 어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촌계에서 마을 어장에 동죽 종패를 방류하여 수확을 거두었으며, 향후 가무락으로 확대를 계획 중이다. 마을 인근에는 박가산이 있으며 동호리 주변에는 대죽도, 소죽도라는 작은 섬이 있다.

동호리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은 영신당이 있다. 오래 전 동호리 마을에 살던 할머니와 며느리가 바다에 안개가 끼면 불을 지피고, 꽹가리를 치면서 어선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원하였는데, 이를 기리며 영신당이라는 곳에서 풍화제를 지내며 할머니 제례를 함께 모시고 있다. 동호리 마을에서도 영신당 홍보를 위해서 전남대학교와 연계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는 전라북도의 칠산바다 파시 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 영신당의 홍보를 위해서 마을에서는 동호항 남쪽의 마을 전망대에 계단식 둘레길을 조성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공사 중단 상황이다.

마을 전망대에 위치한 영신당 아래로는 동굴이 있으며 어촌계에서는 바다, 육지, 주차장을 있는 쉼터 공간으로의 활용 및 새우젓갈의 판매 등을 구상 중이나 추진은 되고 있지 않다. 마을 동굴의 경우 일제강점기 채굴 목적으로 지어졌으나 현재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마을에서는 개발이 힘들다면 역사관이나 전시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2-39〉 동호리 마을 자산

자산 유형	주요 마을 자산
자연과 생태	동호해수욕장, 동죽, 가무락, 박가산, 대죽도, 소죽도
역사문화자원	영신당, 풍화제, 동굴

3.1.3. 동호리 마을 주민의 경제특성

동호리 마을 주민의 주요 경제활동은 농림어업이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응답의 90.3%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외 항목도 주부/학생/무직이 9.7%로 마을 주민의 거의 대부분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 내에 동호해수욕장이 있고 상업시설이 있기는 하나, 여름 피서철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농림어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0〉 가구 주요 경제활동

단위: %

구분	동호리(n=31)
농림어업	**90.3**
주부/학생/무직	9.7
자영업(소도매, 요식업 등)	0.0
사무/경영/관리	0.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동호리 마을 주민의 소득 구조 및 특성을 살펴보면 동호리 마을의 연간 소득 규모는 1,001만~2,000만 원인 가구 비율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3,001만~4,000만 원이 22.6%, 2,001만~3,000만 원이 19.4%로 높았다.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29.0%에 이르지만, 4,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전무해 동호리 마을 주민의 연간 소득은 4,000만 원 이하로 조사되었다.

과거 5년 전과 대비한 가구 소득 변화에 대해서 '소폭 증가했다(연 500만 원 내외)'는 의견이 35.5%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소폭 감소했다(연 500만 원 내외)'와 '큰 변화 없음'도 각각 29.0%와 25.8%로 나타나 주민 간 가구 소득 변화의 편차가 있었다. 주 증가 소득원은 농어업 생산소득(35.5%)이었으며, 주 감소 소득원 역시 농어업 생산소득(3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 후의 소득 변화 전망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가 51.6%로 가장 많았으며, '소폭 감소'도 29.0%로 전망하였다. 요컨대 동호리 마을은 농림어업을 가구의 주요 경제활동으로 삼는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나, 전반적으로 농어업 소득이 크지 않고 마을 주민 간 편차가 커 소득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마을로 분석된다.

〈표 2-41〉 가구 소득 규모 및 소득 변화

단위: %

구분		동호리(n=31)
가구 연소득 규모	500만 원 이하	12.9
	501만~1,000만 원	16.1
	1,001만~2,000만 원	**29.0**
	2,001만~3,000만 원	**19.4**
	3,001만~4,000만 원	**22.6**
	4,001만~5,000만 원	0.0
	5,001만~1억 원	0.0
	1억 원 이상	0.0
5년 전 대비 소득 변화	크게 감소함(1,000만 원 이상)	9.7
	소폭 감소함(500만 원 내외)	**29.0**
	큰 변화 없음	**25.8**
	소폭 증가함(500만 원 내외)	**35.5**
	크게 증가함(1,000만 원 이상)	0.0
	잘 모르겠다	0.0
5년 후 소득 변화 전망	크게 감소할 것	12.9
	소폭 감소할 것	**29.0**
	큰 변화 없음	**51.6**
	소폭 증가할 것	6.5
	크게 증가할 것	0.0
	잘 모르겠다	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동호리 마을 주민의 소비 구조 및 특성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가구별 총지출 규모는 1,001만~2,000만 원 가구가 4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1,000만 원 이하 가구로 45.2%를 차지하여 전체의 93.6%로 조사되었다. 과거 5년 전 대비 소비지출 변화에 대해서 '소폭 증가함'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폭 감소함'이 25.8%, '큰 변화 없음'이 22.6%로 조사되었다.

소비생활 여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다가 64.5%로 가장 많았고, 과거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나빠졌다가 32.3%로 나타나 두 응답이 전체의 96.8%로 조사되었다. 어업으로 부유했던 과거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보상비 등으로 풍족한 소비생활 여건을 갖췄던 동호리 마을의 기억이 반영된 응답으로 풀이된다.

〈표 2-42〉 가구 지출 규모 및 변화

단위: %

구분		동호리(n=31)
가구 총지출	1000만 원 이하	**45.2**
	1001만~2,000만 원	**48.4**
	2001만~3,000만 원	6.5
	3000만 원 이상	0.0
5년 전 대비 지출 변화	크게 감소함	3.2
	소폭 감소함	**25.8**
	큰 변화 없음	**22.6**
	소폭 증가함	**48.4**
	크게 증가함	0.0
	잘 모르겠다	0.0
소비생활 여건 변화	과거에는 나빴지만 지금은 좋아졌다	3.2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다	**64.5**
	과거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나빠졌다	**32.3**
	과거에도 나빴고, 지금도 나쁘다	0.0
	잘 모르겠다	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동호리 마을 주민들은 주요한 소비지출 항목으로 의료비(6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2순위로는 생활비(44.8%), 3순위로는 주거비(56.9%)로 조사되었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농어촌의 특성이 의료비 비중을 높였고, 육지 끝에 자리한 연안 어촌 마을의 지리적 특성은 생활비와 주거비 비중의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표 2-43〉 소비활동 비중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생활비(식료품, 의류 구입, 이발 등)	29.0	**48.4**	19.3
주거비(월세, 전기세, 난방비 등)	3.2	32.3	**58.1**
의료비(진료, 약품 구입 등)	**61.3**	16.1	9.7
문화/여가(여행, 취미, 영화관람 등)	0.0	0.0	0.0
교육비(자녀 학자금, 학원비, 직업훈련 등)	6.5	3.2	0.0
교통/통신비	0.0	0.0	12.9
기부/헌금(사회단체, 종교단체 기부 등)	0.0	0.0	0.0
부채상환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동호리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의 소비활동을 해리면 내(80.6%)에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창군 해리면 내에서도 육지 끝에 위치한 동호리 마을의 지리적 특성으로 대부분의 소비활동이 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호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물품들이 면에서 거래되는 까닭으로 분석된다.

〈표 2-44〉 소비활동을 하기 위한 주 방문지

단위: %

구분		동호리(n=31)
소비활동을 하기 위한 주 방문지	해당 면소재지	80.6
	해당 읍소재지	9.7
	해당 마을 및 인근 마을	6.5
	인근 면소재지	3.2
	인근 중소도시	0.0
	서울, 부산 등 대도시	0.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3.2. 동호리 마을의 경제 현황

3.2.1. 농어업 활동의 실태

동호리 마을의 농업 경작지 총면적은 2,206평으로 5년 전과 비교해 54평이 감소하였다. 자가 영농은 18평 감소하였으며, 임차 영농은 36평 감소하였다. 매출액 역시 67만 원 감소하였다. 마을 어장의 경우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적은 1.2ha, 매출액은 1,282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나, 어촌계장에 의하면 마을 어장 면적은 130ha, 매출액은 3,58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45〉 농어업 면적 및 매출액

단위: 평, 만 원, ha

구분			5년 전	2016년
농업	면적	총 영농 면적	2,260	2,206
		자가 영농	2,164	2,146
		임차 영농	96	60
	매출액		859	792
어업	면적	총 어장 면적	1.21	1.21
		개인 어장	1.11	1.11
		마을 어장	0.10	0.10
	매출액		1,328.95	1,281.58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향후 농어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에 있어서 현재의 농어업 경제활동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다. 농어업 활동의 축소 내지 그만두겠다는 마을 주민은 28.6%인 데 비해 확대/발전시키고 싶다는 응답은 14.3%에 불과하였다. 마을 소득 규모를 감안할 때 농어업 활동의 침체 및 경험 부족 등으로 마을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농어업 후계자를 두고 있는 경우가 3.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표 2-46〉 향후 농어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 및 농어업 후계자 유무

단위: %

구분		동호리(n=28)
향후 농어업 규모 확대 의사	확대/발전시키고 싶다	14.3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57.1**
	현재보다 축소할 것이다	10.7
	모두 그만두고 싶다	17.9
	잘 모르겠다	0.0
	합계	100.0
영농어 후계자 유무	있다	3.6
	없다	**96.4**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은퇴 시 농지(어장)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영농을 대행하겠다가 3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식에게 상속하겠다가 35.7%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다른 어촌 마을이 주로 구체적 계획이 없거나 자식 상속이 많은 데 비해 특징적으로 동호리 마을에서 나타난다. 어촌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마을 어장을 상실한 동호리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어촌계원으로서 어업경영권만 가지고 있거나 소규모의 농지를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표 2-47〉 은퇴 시 농지(어장) 계획

단위: %

구분	동호리(n=28)
구체적 계획이 없다	7.1
자식에게 상속하겠다	35.7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영농을 대행하겠다	39.3
자식에게 맡겨 계속 농사를 짓게 하겠다	7.1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겠다	10.7
현재 농지를 임차하고 있다	0.0
합계	1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농어업 외 별도의 경제활동에 관한 의향도 93.5%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별도 경제활동에 관한 의향을 밝힌 경우로는 자영업(소도매, 요식업 등), 판매/영업/서비스업이었다. 이는 어촌계장 면담 결과에 따르면 동호해수욕장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업 활동에 관한 의향을 가진 주민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8〉 주민의 농어업 외 별도 경제활동 의향

단위: %

구분	동호리(n=31)
없다	93.5
농림어업과 관련된 경제활동	0.0
생산/기능/노무업	0.0
자영업(소도매, 요식업 등)	3.2
판매/영업/서비스업	3.2
농림어업	0.0
전문/기술업	0.0
사무/경영/관리	0.0
자유업	0.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3.2.2. 영농(영어)방식의 시도와 변화

동호 어촌계의 현황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과거 원전 건설로 인한 면허보상 이후 한정면허로 소규모의 공동 어장을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어촌계에서는 공동어업을 시행하고 개별적으로 어업행위를 하고 있다. 최근 동호어촌계는 마을 어장을 활성화하여 마을 공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바지락, 가무락 등의 종패사업을 통해 어장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다만 어장 형성 이후 관리 운영에 대한 계획이 부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마을 어장 형성 이후 아직 공동채취를 하고 있지 않은데 마을 어장의 위치가 마을과 떨어진 동호해수욕장 가운데 위치하여 접근의 어려움이 있으며 어촌계의 적극적 협조가 부족하여 노동력 확보가 힘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생산량이 확보된 이후에는 공동채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정면허를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의 마을 어장은 여름시즌에 관광객들의 채취로 인하여 운영상 일정부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동호 마을과 연결된 동호항 일대를 마을 어장으로 형성하고자 하는데, 접근성에 따른 위치적 이점 및 관리 운영에도 적합한 지역으로 어촌계는 판단하고 있다.

동호어촌계는 다시 어촌마을로서의 기능을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역으로 마을 어장의 복원과 관리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다른 우수지역을 통해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

3.2.3. 비농어업 경제활동의 특성 및 변화

동호리 마을의 비농어업 경제활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농수산 특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비농어업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농회사법인·어촌계 등 조직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형태가 78.6%로 가장 많았으며,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어가가 3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 수행의 경우에는 동호해수욕장 관광객을 상대로 한 횟집 및 직거래의 경우이며, 어촌계 등 조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한정면허를 획득한 어촌계 마을 어장에서 채취한 백합의 직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9〉 농어가의 6차산업 항목별 수행 여부(N=28)

단위: %

구분	농수특산물 가공품 생산	농수특산물 직접 판매	농어촌 관광
수행하지 않는다	**100.0**	14.3	**100.0**
개별적 수행	0.0	39.3	0.0
영농회사법인·어촌계 등 조직으로 수행	0.0	**78.6**	0.0
정부지원사업에 마을 공동수행	0.0	3.6	0.0
정부지원 없이 마을 공동수행	0.0	3.6	0.0

주: 중복응답.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동호리 마을 주민들은 다면적 경제활동이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0%가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37.5%는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전체의 87.5%가 다면적 경제활동이 소득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면적 경제활동 참여 및 운영 의사는 25.0%만이 밝혔는데, 이는 조사 응답의 표본 수가 작아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주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요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면적 경제활동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마을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촌계 등 조직에 참여(27.3%)하거나 개별적으로 수행(18.2%)하는 방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50〉 다면적 경제활동

단위: %, 점

구분		비율
다면적 경제활동의 소득 증진 도움 정도 (n=24)	큰 도움이 된다	**50.0**
	약간 도움이 된다	37.5
	보통이다	8.3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4.2
	합계	100.0
	5점 평균	4.33
다면적 경제활동 참여 및 운영 의사 (n=4)	매우 그렇다(구체적 계획이 있다)	0.0
	그렇다	25.0
	보통이다	0.0
	아니다	0.0
	전혀 아니다(참여할 생각이 없다)	**75.0**
	5점 평균	1.75
다면적 경제활동 수행 방식 (n=11)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마을공동수행	**45.5**
	개별적으로 수행	18.2
	영농어회사법인, 어촌계 등 조직에 참여	**27.3**
	농수축협 조직에 참여	0.0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수행	9.1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3.2.4. 공동체-기반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의 공간적 범역

동호리 마을 가구에서 참여하고 있는 주요한 경제조직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지역 농수협, 작목반 등으로 조사되었다. 어촌계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41.3%였으며 농수협 또한 17.4%로 비교적 높았다. 작목반의 경우에는 어업인

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어촌계장 면담을 통해 조사되었다. 마을 주민 중 참여 경제조직이 없거나 무응답인 경우는 15.2%로 마을 고령화로 인한 기존 조직의 탈퇴로 판단된다.

〈표 2-51〉 마을 가구별 참여 경제조직

단위: %

구분	동호리(n=31)
어촌계	**41.3**
지역농수협	17.4
작목반	10.9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8.7
협동조합(농수협 이외)	0.0
마을기업 혹은 마을공동체회사	2.2
산림계	2.2
부녀회	2.2
없음/무응답	15.2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동호리 마을 가구별 마을활동은 공동생산활동과 공동어업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두레, 품앗이 등의 공동생산활동에 거의 매번 참여하는 마을 주민이 58.1%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어업활동의 경우에도 거의 매번 참여하는 비율이 51.6%로 활발했다. 5점 평균은 공동생산활동이 3.9점, 공동어업활동이 3.39점으로 조사되었다. 동호리 마을은 전반적으로 마을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전통적인 상호부조 문화에 기반한 공동생산 및 어업활동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표 2-52〉 동호리 마을 가구별 마을활동 항목별 참여 수준

단위: %, 점

구분	전혀 참여 안 함	참여 안 함	보통	참여	거의 매번 참여	모름/무응답	5점 평균
공동생산활동	19.4	0.0	9.7	12.9	**58.1**	0.0	3.90
공동어업활동	35.5	0.0	6.5	6.5	**51.6**	0.0	3.39

주: n=31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5년 전과 대비한 마을 공동경제활동은 5년 전과 변함없이 활발하다가 전체 응답의 45.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5년 전에 비해 침체되었다가 25.8%로 상반된 응답이 나타났다.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과거와 변함없이 활발하다고 응답한 데는 주로 공동생산활동 및 공동어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해당된다. 5년 전에 비해 침체되었다고 평가하는 이들은 마을의 구심체인 어촌계가 하나인 데 비해, 마을 이장과 노인회는 면이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문제 및 지역 표 확보를 위한 정치적 문제로 각각 2개가 되어 마을 공동경제활동에 대한 이해관계가 나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2-53〉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과거(5년 전) 대비 활성화 정도

단위: %

구분	동호리(n=31)
5년 전에 비해 활발해졌다	12.9
5년 전과 변함없이 활발하다	**45.2**
5년 전과 변함없이 저조하다	16.1
5년 전에 비해 침체되었다	25.8
잘 모르겠다	0.0
모름/무응답	0.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마을 공동경제활동은 가정경제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5.2%는 공동경제활동이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29%는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의 74.2%가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가정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는 6.5%에 불과하였다.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마을 발전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주민이 전체의 64.5%를 차지하였으며 크게 도움이 되었다가 12.9%, 보통이다가 9.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의견도 12.9%로 나타나 마을 공동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54〉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동호리(n=31)
가정경제 도움 정도	큰 도움이 된다	29.0
	약간 도움이 된다	**45.2**
	보통이다	19.4
	도움이 별로 안 된다	6.5
	전혀 도움이 안 된다	0.0
	합계	100.0
마을 발전 도움 정도	크게 도움이 된다	12.9
	약간 도움이 된다	**64.5**
	보통이다	9.7
	도움이 별로 안 된다	12.9
	전혀 도움이 안 된다	0.0
	합계	100.0

자료:주민설문조사 결과.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긍정적 영향으로는 마을 생활환경의 개선이 3.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마을 주민 사이의 교류 증대와 관계 회복(3.77점), 마을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 마을 노인과 저소득가구 등의 복지 혜택 증가(3.71점)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는 마을 공동경제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좋으나 구체적으로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2-55〉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긍정적 영향(N=31)

단위: 점

구분	5점 평균
마을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	3.71
마을 주민 사이의 교류 증대와 관계 회복	3.77
마을 노인과 저소득가구 등의 복지 혜택 증가	3.71
마을에 살러 온 귀농어귀촌인이 증가함	3.26
마을의 생활환경이 개선됨	**3.90**
마을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	3.42
마을 브랜드 가치 향상 혹은 홍보 효과	3.55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3.2.5. 정부 정책과 경제활동과의 관계

동호리 마을은 원전으로 인한 면허보상으로 어업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어촌 지역이다. 정부 보상으로 경제적인 소득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업을 생업으로 했던 많은 마을 주민들이 다시금 어업을 바라고 있는 마을이다.

어촌계는 한정면허를 취득하여 패류를 생산하고자 하였으나 면허지역의 위치적 제약 및 공동생산 시스템의 부재로 생산 활동에 있어 한계가 있다. 지자체에서 종패살포 등 마을 어장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마을 스스로의 자립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가깝게는 수협, 지자체 등의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다. 기존 정부 사업과 관련하여 동호리 마을에서는 과거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신청하여 공동창고를 설치하였으나 수산물 생산 등이 미흡하여 이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과거 어촌계와 마을에서 마을 부지의 활용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 마을공동 부지가 2만 평 정도로 비교적 넓은데 비해 활용도는 미비하였다. 현재는 캠핑을 위한 공간으로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향후 어촌계에서 워터파크, 라이프레저 체험 시설을 위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3. 동호리 마을의 경제활동 전망과 시사점

3.3.1. 동호리 마을 경제활동의 특성 요약

동호리 마을은 과거 80년대 한빛원자력발전소 개발로 인하여 마을의 어업 관련 면허를 상실하고 보상을 받아 어업행위에 제약이 생겼다. 이후 한정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공동채취활동은 거의 없으며 마을 어장은 종패살포 등 마을 어장 복원 및 조성을 통해 향후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동호리 마을은 어촌 마을로서의 기능이

소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는 어촌계가 마을의 구심점이 되고 있기는 하나 마을 이장 이분화 문제 등 마을 경제를 위한 정책사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동호리 마을의 노령화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마을 경제활동이 어업 생산에서 농업 생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어업 생산 활동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어업 생산을 통한 지속적인 소득창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농업 생산에 있어서도 대규모 농업이 아닌 소규모 농업에 치중되어 있어 마을의 경제상황은 다른 어촌 지역에 비해 좋지 않다. 여타의 일반적인 어촌과 비교해 다른 점은 마을 어장 및 어업인의 면허 상실로 인한 생산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3.3.2. 동호리 마을 경제활동의 전망과 계획

현재는 동호 어촌계의 마을어장이 동호해수욕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활발한 생산 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개별 생산활동에 치우쳐 있다. 동호해수욕장의 방문객을 위하여 해수욕장을 개방하고 있어 마을 어장의 지속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지속적인 어장 관리를 통해 향후 마을 어장을 활용한 어촌계 공동생산활동이 필요하다. 동호리 어촌계는 기존의 한정면허 지역에 더불어 동호항 일대의 일부를 한정면허지로 추가 지정받고자 하고 있다. 기존의 어장에 비해 동호항 일대는 관광지와 분리되어 있고 어항과의 접근성 또한 좋은 지역이라 향후 동죽, 바지락 등의 종패사업을 통한 마을 어장 형성 계획이 추진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호 어촌계는 수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마을 주민의 협조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마을 공동 어장의 소멸과 함께 이후 시간이 흐르며 어업에 대한 노하우가 사라지고 있는 점, 노령화 및 농업 위주의 경제활동으로의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동호리 마을은 마을 소유의 공동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과거 내부갈등으로 인해 부지 이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현재는 마을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 공동소유의 부지 활용에 적극적

이다. 동호리 마을이 다시 어촌 마을로서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수산물 생산이 바탕이 되는 경제활동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3.3.3. 정부 정책의 방향

동호리 마을 사례가 시사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 건설로 어장을 상실한 지역이나, 수산물 생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경제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 공동체인 어촌계의 역할이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 마을의 구심점이 되어 사회문화적인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를 통한 정책사업 투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동호리 마을 주민들도 마을 사업 등 변화에 개방적인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동호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의 증가는 관광객 유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유인요소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어촌계가 구상하고 있는 동호항의 영신당 동굴 등을 통한 사업 및 동호항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객 쉼터 조성 등의 수요에 대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조사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태안군 안면읍 승언8리

4.1. 승언8리 마을 경제의 일반 현황

4.1.1. 승언8리 마을의 경제적 특성

승언8리 마을의 가구 수는 280가구이며, 가구당 인구는 2.48명으로 다른 어촌 지역에 비하여 가구당 인구가 많다. 승언8리 마을은 방포항을 중심으로 자

연 마을이 있으며 대부분의 논밭 부지는 펜션 부지로 변화되어 농가는 거의 없으며 일부가 텃밭을 꾸리는 정도의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다. 승언8리에는 방포 어촌계가 있는데, 방포 어촌계원은 80명이며 어촌계원의 변동 사항은 없다. 방포 어촌계는 마을어업, 나잠어업 등이 행해지고 있으며 일부 비계원이 어선어업을 하고 있다. 어촌계원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50%이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승언8리 마을 토착민과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어선어업의 경우 선주 내지 선장은 한국인이지만 선원의 대다수는 외국인인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표 2-56〉 승언8리 마을의 일반 현황

단위: 가구, 명, %

구분	승언8리(n=40)
가구 수	280
가구당 인구	2.48
고령화율	50

주: 주민설문조사 결과.

4.1.2. 마을 자산 및 경제 인프라

승언8리 마을은 태안군 안면읍의 서해 쪽에 입지하고 있으며 방포항을 중심으로 밀집된 상가와 일부 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승언8리 마을에는 다양한 자연생태자산이 존재한다. 마을의 남쪽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꽃지해수욕장이 있으며 방포항과는 꽃다리라는 인도교로 연결된다. 방포항에는 천연기념물 제138호인 모감주나무 군락지와 오토캠핑장이 있으며 방파제 북쪽으로는 방포해수욕장이 있다. 방포항은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썰물에는 항 앞의 할매바위, 할배바위와 모래갯벌을 거닐며 일몰을 즐길 수 있다.

승언8리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으로는 바다목장체험관이 있다. 바다목장체험관은 태안군에서 실시하는 바다목장사업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이다. 꽃지해변에는 ATB 체험장이 있어 관광객들이 레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승언8리

마을의 마을 경관으로는 방포항과 꽃지해수욕장을 이어주는 꽃다리라는 인도교가 있으며 꽃다리는 밤이 되면 조명으로 밝게 빛난다. 할매바위와 할배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일몰은 매우 유명하며, 꽃지해변은 2011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태안군이 조성한 '태안 해변길'의 5코스 '노을길'의 종점이기도 하다.

〈표 2-57〉 승언8리 마을 자산

자산 유형	주요 마을 자산
자연과 생태	꽃지해수욕장, 방포항, 모감주나무 군락지, 오토캠핑장, 방포해수욕장, 할매바위, 할배바위
역사문화자원	바다목장체험관, ATB 체험장
마을 경관	꽃다리, 일몰, 노을길

승언8리 마을은 2개의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관광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경제 인프라 역시 관광숙박시설이 많다. 음식점 24개소, 슈퍼 등 상점 9개소, 펜션·모텔 등 숙박업소 69개소가 밀집해 있다. 상점은 방포항에 1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은 방포해수욕장에 있다. 음식점은 방포항에서 꽃지로 넘어가는 자동차도로인 할매다리 인근에 5개소, 승언8리 마을로의 진입로에 2개소, 방포해수욕장 진입로에 2개소가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방포항 해안도로를 따라 밀집해 있다. 숙박업소도 크게 방포해수욕장 배후부지, 승언8리 마을 진입로, 방포항의 3지역에 밀집해 있다. 방포항 내 모감주나무 군락지와 바다목장 체험관 사이에는 수산물 보관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나 사유시설이다.

승언8리 마을의 상업밀집지역은 숙박업소가 밀집한 지역과 유사하다. 방포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슈퍼가 밀집해 있으며, 방포항 내에는 항을 찾은 관광객들이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횟집 등 음식점과 함께 펜션 등의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다. 승언8리 마을 진입로 인근의 상업시설들은 밀집도가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데, 이는 상업시설이 발달하면서 차후 개발된 곳으로 펜션이 보다 많다.

바다목장체험관은 태안군이 실시하고 있는 서해(태안) 갯벌형 바다목장시범사업을 전시하는 공공시설건물이다. 바다목장체험관은 671㎡ 부지에 지상 3층,

485㎡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며, 국비 17억 원이 투자되었다. 바다목장체험관은 공공을 대상으로 1층 어촌체험장, 2층 바다목장전시관, 3층 전망대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서해 갯벌형 바다목장시범사업은 2004년부터 10여 년 동안 추진되었으며 국가시범바다목장사업의 일환으로 남해의 여수, 동해의 울진, 제주와 함께 조성되었고 총사업비는 337억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다. 바다목장은 생태기반 바다목장 및 갯벌체험어장 조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인공어초 투하, 종묘 방류 등을 진행한다.

4.1.3. 승언8리 마을 주민의 경제특성

승언8리 마을 주민의 주요 경제활동은 자영업(소도매, 요식업 등)과 농림어업이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승언8리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요 경제활동은 자영업(소도매, 요식업 등)이 50.0%, 농림어업이 45.0%이 전체 응답의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꽃지해변, 방포항, 방포해수욕장 등 다양한 마을 자원의 관광자원화가 이루어지면서 주민의 경제활동 역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요식업이 많으며 어촌계원인 마을 주민은 어업을 통해 생산한 수산물을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요식업을 병행하며 판매하고 있다.

〈표 2-58〉 가구 주요 경제활동

단위: %

구분	승언8리(n=40)
농림어업	45.0
주부/학생/무직	0.0
자영업(소도매, 요식업 등)	**50.0**
사무/경영/관리	2.5
생산/기능/노무직	2.5
농림어업과 관련된 경제활동	0.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승언8리 마을 주민의 연간 소득 규모는 5,001~1억 원 가구가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3,001만~4,000만 원 가구로 22.5%였으며, 2,001만~3,000만 원인 가구는 17.5%로 조사되었다. 승언8리 마을은 다른 어촌 마을에 비해 연간 소득규모가 매우 높은 마을로 조사되었다.

5년 전과 대비했을 때 총소득은 중장5리 마을 주민의 절반 정도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나머지 주민들은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큰 변화 없음'이 55.0%로 가장 많았으나, '소폭 감소(연 500만 원 내외)'가 27.5%, '크게 감소(연 1,000만 원 이상)'가 15.0%로 나타나는 등 마을 주민의 42.5%는 총소득 감소를 경험하였다. 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는 의견은 2.5%에 그쳤다. 주 감소 소득원은 비농어업사업소득(30.0%)이었으며, 주 증가 소득원 역시 비농어업사업소득(2.5%)로 나타났다. 이는 승언8리 마을 주민의 상당수가 방포항을 중심으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소득 변화에 대한 예상에 있어서도 마을 주민의 65.0%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20.0%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상되는 주 감소 소득원 역시 비농어업사업소득(20.0%)이 가장 많았으며, 농어업소득은 7.5%로 조사되었다.

〈표 2-59〉 가구 소득 규모 및 소득 변화

단위: %

구분		승언8리(n=40)
가구 연소득 규모	500만 원 이하	0.0
	501만~1,000만 원	12.5
	1,001만~2,000만 원	10.0
	2,001만~3,000만 원	**17.5**
	3,001만~4,000만 원	**22.5**
	4,001만~5,000만 원	2.5
	5,001만~1억 원	**27.5**
	1억 원 이상	7.5
5년 전 대비 소득 변화	크게 감소함(1,000만 원 이상)	15.0
	소폭 감소함(500만 원 내외)	**27.5**
	큰 변화 없음	**55.0**
	소폭 증가함(500만 원 내외)	2.5
	크게 증가함(1,000만 원 이상)	0.0
	잘 모르겠다	0.0
5년 후 소득 변화 전망	크게 감소할 것	7.5
	소폭 감소할 것	**20.0**
	큰 변화 없음	**65.0**
	소폭 증가할 것	7.5
	크게 증가할 것	0.0
	잘 모르겠다	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승언8리 마을 주민의 소비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총지출 규모는 2,001만~3,000만 원 가구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1,001만~2,000만 원 가구로 37.5%를 차지했다. 두 항목을 합한 비율은 전체 응답의 80.0%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1,001만~3,000만 원의 소비지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년 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마을 주민의 72.5%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나, 25.0%는 소폭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소비생활 여건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2.5%로 가장 많았으나,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다는 의견도 40.0%로 조사되었다. 이는 꽃지해수욕장, 방포해수욕장, 방포항 등 유명한 관광지를 배

경으로 하고 있는 승언8리 마을은 오래전부터 지역의 소비생활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승언8리 마을 주민들의 소비활동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의료비(진료, 약품 구입 등)가 32.5%로 1순위로 꼽혔다. 다음으로는 주거비가 44.4%로 2순위, 생활비가 53.5%로 3순위로 꼽혔다.

〈표 2-60〉 가구 지출 규모 및 변화

단위: %

구분		승언8리(n=40)
가구 총지출	1,000만 원 이하	12.5
	1,001만~2,000만 원	**37.5**
	2,001만~3,000만 원	**42.5**
	3,000만 원 이상	7.5
5년 전 대비 지출 변화	크게 감소함	0.0
	소폭 감소함	0.0
	큰 변화 없음	**72.5**
	소폭 증가함	**25.0**
	크게 증가함	0.0
	잘 모르겠다	2.5
소비생활 여건 변화	과거에는 나빴지만 지금은 좋아졌다	2.5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다	**40.0**
	과거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나빠졌다	**52.5**
	과거에도 나빴고, 지금도 나쁘다	5.0
	잘 모르겠다	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표 2-61〉 소비활동 비중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생활비(식료품, 의류 구입, 이발 등)	10.0	19.2	**53.5**
주거비(월세, 전기세, 난방비 등)	30.0	**44.4**	22.2
의료비(진료, 약품 구입 등)	**32.5**	18.2	5.1
문화/여가(여행, 취미, 영화관람 등)	5.0	11.1	18.2
교육비(자녀 학자금, 학원비, 직업훈련 등)	22.5	7.1	0.0
교통/통신비	0.0	0.0	1.0
기부/헌금(사회단체, 종교단체 기부 등)	0.0	0.0	0.0
부채상환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승언8리 마을 주민들이 소비활동을 위해 주로 방문하는 곳은 해당 면소재지가 87.5%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승언8리 마을은 안면읍이 비교적 근교에 위치해 있는데, 안면읍은 상업시설이 상당히 밀집해 있는 발전한 면소재지로 대부분의 소비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2-62〉 소비활동을 하기 위한 주 방문지

단위: %

구분		승언8리(n=40)
소비활동을 하기 위한 주 방문지	해당 면소재지	**87.5**
	해당 읍소재지	5.0
	해당 마을 및 인근 마을	0.0
	인근 면소재지	7.5
	인근 중소도시	0.0
	서울, 부산 등 대도시	0.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4.2. 승언8리 마을의 경제 현황

4.2.1. 농어업 활동의 실태

승언8리 마을의 농업 경작지 총면적은 7,100평으로 5년 전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다. 자가 경작지가 6,433평, 임차 경작지 667평도 변화가 없었으며, 매출액 역시 3,000만 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승언8리 마을의 어장도 면적과 매출액에 변화가 없었는데, 마을 어장 130ha, 매출액은 3,58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농어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에 있어서도 전수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현재의 농어업 경제활동 규모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 후계자가 있는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표 2-63〉 농업 면적 및 매출액

단위: 평, ha, 만 원

구분			5년 전	2016년
농업	면적	총 영농 면적	7,100	7,100
		자가 영농	6,433	6,433
		임차 영농	667	667
	매출액		3,000	3,000
어업	면적	총 어장 면적	130	130
		개인 어장	0	0
		마을 어장	130	130
	매출액		3,588	3,588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표 2-64〉 향후 농어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

단위: %

구분	승언8리(n=20)
확대/발전시키고 싶다	0.0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100.0
현재보다 축소할 것이다	0.0
모두 그만두고 싶다	0.0
합계	1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은퇴 시 농지(어장) 계획 역시 80.0%가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자식에게 상속하거나 자식에게 맡겨 어업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어업행위의 경영권 승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표 2-65〉 은퇴 시 농지(어장) 계획

단위: %

구분	승언8리(n=20)
구체적 계획이 없다	80.0
자식에게 상속하겠다	10.0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영농을 대행하겠다	0.0
자식에게 맡겨 계속 농사를 짓게 하겠다	10.0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겠다	0.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4.2.2. 영농(영어)방식의 시도와 변화

승언8리 마을의 영어방식 변화는 노동력의 부족에서 시작된다. 어선어업이 중심이 되는 승언8리 마을에서 어선어업은 선원들을 외국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마을어장에서도 해남, 해녀 등을 고용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마을어업은 공동 작업에서 전문 채취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원의 경제적인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수산물 판매 방식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협을 통한 위판 판매의 비중이 줄어들고, 영어법

인을 통한 판매와 관광객 대상의 직접 판매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직판매장에 대한 어촌계의 관심이 높으며 6차산업과 관련한 가공에 대한 관심도 시작되고 있다.

많은 어촌계원들은 어업을 최소화하고, 식당과 펜션 등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어업 역시 식당 등 자영업 운영을 위한 어업이 많다. 관광객과 상업시설의 증가는 기존의 논밭에서 작게 나마 농업을 운영하던 농가에도 영향을 끼쳤다. 농가는 논밭을 펜션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등 농업에서 상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하였는데, 현재는 농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4.2.3. 비농어업 경제활동의 특성 및 변화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승언8리 마을의 다면적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농수산물의 직접 판매와 농어촌 관광이 주를 이룬다. 가공품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수산물의 직접 판매는 15.0%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농어촌 관광의 경우에는 영어회사법인, 어촌계 등 조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다. 이는 바다목장체험관에 있는 어촌체험을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해당된다.

다면적 경제활동이 소득 증진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을 주민이 전체 응답의 80.0%를 차지하여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다면적 경제활동이 소득 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언8리 마을 주민들은 다면적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운영하겠다는 의사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및 운영 의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마을 주민은 전체 응답의 60.0%였으며, 40.0%도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66〉 농어가의 6차산업 항목별 수행 여부

단위: %

구분	농수특산물 가공품 생산	농수특산물 직접 판매	농어촌 관광 (숙박, 음식, 체험활동 등)
수행하지 않는다	100.0	85.0	40.0
개별적 수행	0.0	15.0	0.0
조직으로 수행	0.0	0.0	50.0
기타	0.0	0.0	10.0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표 2-67〉 다면적 경제활동

단위: %, 점

구분		비율
다면적 경제활동의 소득 증진 도움 정도 (n=15)	큰 도움이 된다	0.0
	약간 도움이 된다	80.0
	보통이다	20.0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0.0
	합계	100.0
	5점 평균	3.80
다면적 경제활동 참여 및 운영 의사 (n=5)	매우 그렇다(구체적 계획이 있다)	0.0
	그렇다	0.0
	보통이다	40.0
	아니다	40.0
	전혀 아니다(참여할 생각이 없다)	20.0
	5점 평균	2.20
다면적 경제활동 수행 방식 (n=3)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마을공동수행	33.3
	개별적으로 수행	33.3
	영농어회사법인, 어촌계 등 조직에 참여	0.0
	농수축협 조직에 참여	33.3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수행	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4.2.4. 공동체-기반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의 공간적 범역

승언8리 마을 가구에서 참여하고 있는 주요한 경제조직은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과 어촌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이라고 응답한 마을 주민은 47.3%였으며, 어촌계

라고 응답한 마을 주민은 30.9%로 나타났다. 승언8리 마을은 경제조직으로 어촌계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기는 하지만 영어조합법인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조합법인이 방포 어촌계 설립 이전부터 설립되어 마을의 경제활동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 2-68〉 마을 가구별 참여 경제조직

단위: %

구분	승언8리(n=40)
어촌계	**30.9**
지역농수협	0.0
작목반	0.0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47.3**
협동조합(농수협 이외)	0.0
마을기업 혹은 마을공동체회사	0.0
부녀회	0.0
없음/무응답	**21.8**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승언8리 마을 가구의 마을활동 참여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의 마을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생산활동(1.78점), 기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1.85점), 마을공동시설 운영(1.90점), 공동어업활동(1.90점)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수준이다. 다만 영어법인의 영향으로 6차산업(2.28점)은 마을활동 내에서 그나마 참여가 활발한 편이다.

〈표 2-69〉 승언8리 마을 가구별 마을활동 항목별 참여 수준

단위: %, 점

구분	전혀 참여 안 함	참여 안 함	보통	참여	거의 매번 참여	모름/무응답	5점 평균
마을공동시설 운영	**70.0**	0.0	7.5	15.0	7.5	0.0	1.90
공동생산활동	**65.0**	5.0	22.5	2.5	5.0	0.0	1.78
공동어업활동	**65.0**	7.5	12.5	2.5	12.5	0.0	1.90
마을 공동 6차산업	**37.5**	17.5	30.0	10.0	5.0	0.0	2.28
기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	**40.0**	37.5	20.0	2.5	0.0	0.0	1.85

주: n=4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5년 전과 대비한 마을 공동경제활동은 5년 전과 변함없이 활발하다가 전체 응답의 45.0%이며, 5년 전과 변함없이 저조하다가 42.5%로 상반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 마을 공동경제활동에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데다가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경우에도 방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는 어촌계원와 방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어촌계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2-70〉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과거(5년 전) 대비 변화

단위: %

구분	승언8리(n=40)
5년 전에 비해 활발해졌다	7.5
5년 전과 변함없이 활발하다	**45.0**
5년 전과 변함없이 저조하다	**42.5**
5년 전에 비해 침체되었다	0.0
잘 모르겠다	5.0
모름/무응답	0.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마을 주민의 80.0%는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가정경제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17.5%는 보통이라고 응답해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마을 발전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주민의 전체의 87.5%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볼 때, 마을 공동경제활동은 개별 가구의 가정경제와 마을 발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경제활동의 추진내용 및 결과,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양면성을 띈다.

〈표 2-71〉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가정경제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승언8리(n=40)
가정경제 도움 정도	큰 도움이 된다	0.0
	약간 도움이 된다	**80.0**
	보통이다	17.5
	도움이 별로 안 된다	2.5
	전혀 도움이 안 된다	0.0
	잘 모르겠다	0.0
	합계	100.0
마을 발전 도움 정도	크게 도움이 된다	2.5
	약간 도움이 된다	**87.5**
	보통이다	10.0
	도움이 별로 안 된다	0.0
	전혀 도움이 안 된다	0.0
	잘 모르겠다	0.0
	모름/무응답	0.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승언8리 마을의 공동경제활동은 마을의 소득증진과 일자리 창출(4.03점)과 마을 브랜드 가치 향상 혹은 홍보 효과(4.03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마을 노인과 저소득가구 등의 복지 혜택 증가(3.93점), 마을 주민 사이의 교류 증대와 관계 회복(3.70점)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마을에 살러 온 귀농·귀어·귀촌인의 증가(2.90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지 못했는데, 승언8리 마을에는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2〉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긍정적 영향

구분	5점 평균
마을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	**4.03**
마을 주민 사이의 교류 증대와 관계 회복	3.70
마을 노인과 저소득가구 등의 복지 혜택 증가	3.93
마을에 살러 온 귀농어귀촌인이 증가함	2.90
마을의 생활환경이 개선됨	3.25
마을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	3.48
마을 브랜드 가치 향상 혹은 홍보 효과	**4.03**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4.2.5. 정부 정책과 경제활동과의 관계

승언8리 마을은 방포항을 중심으로 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과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과거 방포항 연장에 따른 정부정책이 시행되고자 하였다. 하지만 방포항 연장에 대해 방포해수욕장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연기되었다. 방포항으로 인한 방포해수욕장의 모래 유실이 가장 큰 이유로 이로 인해 마을 간 갈등이 시작되었다. 방포 마을은 어선어업 및 어선을 이용한 수산물 채취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항의 개발이 매우 주요한 마을사업이기는 하였으나 마을 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어촌계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정부사업 또한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이해 및 갈등관리가 선행되었어야 했다. 방포 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개선에 있어 다양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3. 승언8리 마을의 경제활동 전망과 시사점

4.3.1. 승언8리 마을 경제활동의 특성 요약

승언8리 마을은 꽃지해변, 방포항, 방포해수욕장 등 유명한 관광지가 입지해 있고 모감주나무 군락지와 일몰 등 자연과 생태 경관의 마을 자원이 풍부하여 이를 활용한 관광 위주의 경제활동이 주가 되고 있다. 때문에 농어업 활동의 비중이 낮은 대신 숙박, 음식, 상점 등 관광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변화되며 마을 경제활동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기존의 농업 경작지들은 관광지가 활성화되면서 펜션 부지 등으로 변화되며 농업을 하는 마을 주민들은 거의 없으며, 어업의 경우에는 방포항 내 음식점과 숙박업을 전업으로 운영하거나 어업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을 음식점에 활용하거나 판매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 때문에 승언8리 마을은 자영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관광지가 발달한 마을답게 대부분의 어업 경제활동은 관광 관련 비어업 경제활동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마을 공동경제활동은 영어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승언8리 마을은 방포어촌계가 있으나 마을 내 영어조합보다 늦게 출범하였고, 어촌계원 역시 방포항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과 방포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로 나뉘어져 있어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방포항을 이용하고 있는 마을어업, 어선어업, 나잠어업을 하고 있는 어촌계원들은 방포해수욕장의 모래 유입과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방파제 확장, 항 내 준설이 숙원사업인 반면, 방포해수욕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 어촌계원들은 방파제로 인해 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방파제 확장을 반대하기에 이르고 있다.

4.3.2. 승언8리 마을 경제활동의 전망과 계획

승언8리 마을은 상업화로 이미 어촌 마을로의 기능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어촌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어촌계의 마을 어장에서 해삼, 전복, 바지락 등의 공동 채취활동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협을 통한 유통과 직판장 비율이 높아 주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승언8리 마을은 어업 외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시설과 더불어 펜션업을 통한 소득이 높은 편이나 주변지역의 펜션의 증가로 숙박업이 과도하게 많아짐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또한 펜션을 직영이 아닌 임대업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업자의 숙박비 인상→안면도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식 악화→관광객 수 줄어듦→ 숙박비 인상'의 악순환을 겪고 있으며, 이 여파는 마을 주민들의 소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승언8리 마을은 전형적인 어촌에서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사업지역으로의 변화를 겪은 곳이기는 하나 여전히 수산업이 주요한 경제 활동으로 남아 있다. 고령화와 노동력의 감소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어업활동이나 수산물 생산에서 낚시어선으로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종패사업과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마을 어장의 지속성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구복원 등 연안정비 등 마을의 보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4.3.3. 정부 정책의 방향

승언8리 마을 사례가 시사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과 연계한 마을 공동경제활동은 가정경제와 마을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 승언8리 마을은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시설의 집적화로 마을의 기능은 사라져 흔적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관광객의 유입에 따라 경제활동이 어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상업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가구소득 또한 다른 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둘째, 비어업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활성화와 어촌 마을의 공동체와는 긍정적인 관련성이 없다. 승언8리 마을의 특징은 어촌 마을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지만 어촌계를 통한 경제활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방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과 방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로 구분되어 있으나 어촌계는 공동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촌계원 간 이해관계에 따른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갈등이 증폭되어 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업밀집지역이 생길 정도로 경제적 활성화를 이루고는 있으나,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는 해체되어 공동체 기능을 상실한 어촌이 되었다.

셋째, 어촌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귀어·귀촌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귀어·귀촌인의 이주에 앞서 어촌 문화의 특성과 마을 공동체를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5.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5.1. 시방리 마을 경제의 일반 현황

5.1.1. 시방리 마을의 경제적 특성

이수도 마을은 시방리 이수도 내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배를 타고 육지와 접한 시방 마을과 갈바산 남쪽 흥남해수욕장에 위치한 흥남 마을의 3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수도 마을은 학섬이라고도 불린다. 이수도 내에는 43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19명이다.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가구 당 인구는 1.50명이다.

이수도 마을은 이수도 선착장 인근에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으며, 이수도의 서쪽에 밀집해 있다. 섬의 나머지 부분은 숲과 밭, 산책로 등이 구성되어 있다. 이수도에는 이수도 어촌체험마을과 소매점 1곳이 있다. 선착장의 배후부지가 마을의 주 도로며, 주거지역의 북쪽은 귀촌인의 일부 주택 및 펜션이 위치하고, 주거 지역 내에는 이수도 원주민들의 민박이 있다.

〈표 2-73〉 시방리 마을의 일반 현황

단위: 가구, 명

구분	일반 현황
가구 수	43
가구당 인구	1.50

주: 주민설문조사 결과.

5.1.2. 마을 자산 및 경제 인프라

이수도 마을의 자연생태자산은 문어, 대구, 피조개, 바지락 등의 수산자원으로 이수도 마을에서 운영하는 어촌 민박에 수산물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수도 마을의 주요한 자산은 마을 경관이다.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수도를 한 바퀴 일주할 수 있는 산책코스가 이수도 마을의 가장 유명한 관광코스이며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

그러나 이수도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일명 '1박 3식'이라 불리는 어촌 민박이다. 이수도 마을에는 어촌체험마을도 있지만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 민박 허가를 내 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숙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수도의 활성화를 이끌었다.

〈표 2-74〉 이수도 마을 자산

자산 유형	주요 마을 자산
자연과 생태	문어, 대구, 피조개, 바지락
마을 경관	이수도 산책 코스
역사문화자원	어촌 민박(1박 3식), 어촌체험마을

5.1.3. 시방리 마을 주민의 경제특성

시방리 마을 주민의 주요 경제활동은 농림어업이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시방리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요 경제활동은 농림어업이 58.0%, 주부/학생/무직이 26.0%, 자영업(소도매, 요식업 등)이 14.0%로 전체 응답의 98.0%로 거

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자영업은 주로 섬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촌 민박을 운영 중인 주민들이며, 어촌계원인 마을 주민들은 어업을 통해 수산물 생산과 함께 민박에 수산물을 제공하고 있다.

〈표 2-75〉 가구 주요 경제활동

단위: %

구분	시방리(n=50)
농림어업	58.0
주부/학생/무직	26.0
자영업(소도매, 요식업 등)	14.0
사무/경영/관리	0.0
생산/기능/노무직	0.0
판매/영업/서비스직	0.0
전문/기술직	0.0
농림어업과 관련된 경제활동	2.0
자유직	0.0
합계	1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시방리 마을 주민의 소득 구조 및 특성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 규모는 500만~1,000만 원인 가구 비율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01만~2,000만 원인 가구 비율 18.0%, 500만 원 이하인 가구와 2,001만~3,000만 원 가구, 5,001만~1억 원인 가구도 12.0%로 높았다. 3,000만 원 이하 가구 비율이 전체 응답의 66%를 차지하여 과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5년 전과 대비한 가구 소득 변화에 대해서 62%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32%는 '소폭 감소했다(연 500만 원 내외)'고 생각해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가구 소득이 소폭 감소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감소 소득원은 농어업생산 소득과 비농어업사업 소득이 감소(14.4%)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소폭 증가한 경우는 6%로 조사되었는데 주 증가 소득원은 농어업 소득이 4%, 비농어업사업 소득이 2%로 조사되었다. 향후 소득에 대한 전망도 이와 비슷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마을 주민의 80%가 전망하였으나 20%는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2-76〉 가구 소득 규모 및 소득 변화

단위: %

구분		시방리(n=50)
가구 연소득 규모	500만 원 이하	12.0
	501만~1,000만 원	**24.0**
	1,001만~2,000만 원	**18.0**
	2,001만~3,000만 원	12.0
	3,001만~4,000만 원	6.0
	4,001만~5,000만 원	8.0
	5,001만~1억 원	12.0
	1억 원 이상	8.0
5년 전 대비 소득 변화	크게 감소함(1,000만 원 이상)	0.0
	소폭 감소함(500만 원 내외)	32.0
	큰 변화 없음	**62.0**
	소폭 증가함(500만 원 내외)	6.0
	크게 증가함(1,000만 원 이상)	0.0
	잘 모르겠다	0.0
5년 후 소득 변화 전망	크게 감소할 것	0.0
	소폭 감소할 것	20.0
	큰 변화 없음	**80.0**
	소폭 증가할 것	0.0
	크게 증가할 것	0.0
	잘 모르겠다	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해 시방리 마을 주민의 소비 구조 및 특성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가구 총지출 규모는 1,000만 원 이하가 72%로 가장 많았다. 16%가 1,001만~2,000만 원이었으며, 4,000만 원 이상 소비하는 가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5년 전 상황과 소비지출 규모를 비교했을 때 74%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했으며, 18%는 증가, 6%는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소비생활 여건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의 40%는 과거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나빠졌다고 응답하였으며, 38%는 과거에는 나빴지만 지금은 좋아졌다고 응답하여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표 2-77〉 가구 지출 규모 및 변화

단위: %

구분		시방리(n=50)
가구 총지출	1,000만 원 이하	**72.0**
	1,001만~2,000만 원	16.0
	2,001만~3,000만 원	4.0
	3,000만 원 이상	8.0
5년 전 대비 지출 변화	크게 감소함	2.0
	소폭 감소함	4.0
	큰 변화 없음	**74.0**
	소폭 증가함	16.0
	크게 증가함	2.0
	잘 모르겠다	2.0
소비생활 여건 변화	과거에는 나빴지만 지금은 좋아졌다	**38.0**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다	4.0
	과거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나빠졌다	**40.0**
	과거에도 나빴고, 지금도 나쁘다	2.0
	잘 모르겠다	16.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가구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1순위는 생활비가 46.0%, 2순위 생활비 37.3%, 3순위 주거비 69.3%로 조사되었다. 시방리 마을의 경우 소비활동 비중에 있어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비중이 낮지는 않지만 다른 어촌 마을과 달리 의료비가 순위에 꼽히지 못하는 점, 1순위와 2순위 모두 생활비가 선정된 점, 다른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높은 점 등이 그것이다. 이는 시방리 마을이 도서 지역인 것에 기인한다.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외출 등 교통은 항상 도선을 통할 수밖에 없어 생활 및 소비 여건이 육지에 항시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표 2-78〉 소비활동 비중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생활비(식료품, 의류 구입, 이발 등)	**46.0**	**37.3**	2.7
주거비(월세, 전기세, 난방비 등)	2.0	18.7	**69.3**
의료비(진료, 약품 구입 등)	34.0	25.3	21.3
문화/여가(여행, 취미, 영화관람 등)	0.0	2.7	5.3
교육비(자녀 학자금, 학원비, 직업훈련 등)	2.0	0.0	0.0
교통/통신비	16.0	16.0	1.3
기부/헌금(사회단체, 종교단체 기부 등)	0.0	0.0	0.0
부채상환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시방리 마을 주민들이 소비활동을 위해 주로 방문하는 곳은 거제시 시내가 94.0%로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시방리 마을이 소비활동을 위해서는 육지로 나와야만 하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마을을 벗어나는 불편함을 감소하면 소비활동의 지리적 범위는 오히려 확장되기 때문이다. 시방리 마을 및 인근 마을이라 응답한 주민이 없었다는 것도 같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표 2-79〉 시방리의 소비활동을 하기 위한 주 방문지

단위: %

구분		시방리(n=50)
소비활동을 하기 위한 주 방문지	장목면 소재지	0.0
	거제시 시내	**94.0**
	시방리 마을 및 인근 마을	0.0
	인근 면소재지	4.0
	인근 중소도시	0.0
	서울, 부산 등 대도시	2.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5.2. 시방리 마을의 경제 현황

5.2.1. 농어업 활동의 실태

시방리 마을의 농업 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영농 면적은 5년 전 198평에서 2016년 현재 182.3평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경작지는 전수 자가이며, 도서지역인 시방리 마을의 특성으로 타 지역에 비해 경작지 면적은 매우 좁다. 매출액 역시 5년 전 약 613만 원에서 2016년 현재 약 483만 원으로 130만 원 감소하였다. 시방리 마을의 어업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총 어장 면적은 8.4ha로 5년 전과 변화가 없다. 그러나 개인 어장 면적이 2.8ha인 것에 비해, 마을 어장 면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상의 오류로 보인다. 매출액은 5년 전 4,525만 원에서 2016년 현재 4,250만 원으로 275만 원 감소하였다.

〈표 2-80〉 농업 면적 및 매출액

단위: 평, ha, 만 원

구분			5년 전	2016년
농업	면적	총 영농 면적	198.0	182.3
		자가 영농	198.0	182.3
		임차 영농	0.0	0.0
	매출액		612.5	482.5
어업	면적	총 어장 면적	8.4	8.4
		개인 어장	2.8	2.8
		마을 어장	0.0	0.0
	매출액		4,525	4,25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향후 농어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에 있어서 시방리 마을 주민의 90.3%는 농어업 활동의 현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마을 주민의 대다수는 새로운 경제활동으로의 규모 확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 후계자도 시방리 마을 주민의 93.5%가 없다고 응답하여 후속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표 2-81〉 향후 농어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

단위: %

구분	시방리(n=31)
확대/발전시키고 싶다	3.2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90.3**
현재보다 축소할 것이다	0.0
모두 그만두고 싶다	3.2
잘 모르겠다	3.2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은퇴 시 농지(어장)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45.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식에게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35.5%로 많았는데, 이는 어촌계의 어장경영승계에 연관된 부분이다. 12.9%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영농(어장경영)을 대행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시방리 마을 주민의 농어업 외 별도 경제활동 의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주민 전수가 농어업 외 별도 경제활동 의향에 대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2-82〉 은퇴 시 농지(어장) 계획

단위: %

구분	시방리(n=31)
구체적 계획이 없다	**45.2**
자식에게 상속하겠다	**35.5**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영농을 대행하겠다	12.9
자식에게 맡겨 계속 농사를 짓게 하겠다	6.5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겠다	0.0
현재 농지를 임차하고 있다	0.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5.2.2. 영농(영어)방식의 시도와 변화

시방리 마을의 영어 방식의 변화는 수산자원 생산량 감소와 연관된다. 전통적인 주요 어종에 대한 어업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기타어종의 경우 수확량이 줄어듦에 따라 위판 등의 판매보다는 마을 내 어촌민박에서의 관광객 소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방리 마을은 어선어업을 통한 피조개 채취와 대구잡이가 주요한 소득원이다. 어선어업을 하는 가구는 10여 명 정도로 호망 어업을 하는 가구는 연소득 1억 원, 대구 어업을 하는 가구는 연소득 5,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보이고 있다. 마을 어장에서 바지락 채취로 인한 어촌계 소득도 증가하는 추세다.

수산자원 생산량 변화에 따라 어업권 분쟁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통발업을 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에 의한 고소고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존 대구조업 시기에만 조업을 하던 과거와 달리 지속적으로 조업을 하다 보니 어장이 황폐화되고 생산은 줄어들고 있으며, 어구를 무단으로 절도하거나 훼손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수도 수심 일부에는 백화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계절별 기타어종으로는 봄은 도다리와 광어, 여름은 전어, 늦여름은 보리새우와 문어, 겨울에는 대구, 물메기, 아귀 등을 잡는다. 보리새우와 문어는 현재 수확량이 많지 않아 1박 3식을 하는 어촌민박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어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어선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출항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유류비, 선박 및 어구 유지보수 비용 등 투자 비용이 많다. 그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수도 마을 주민들은 주요 어종 시기에 집중적으로 어업을 많이 하고 있으며 기타어종의 경우 위판보다는 이수도 마을의 1박 3식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5.2.3. 비농어업 경제활동의 특성 및 변화

시방리 마을의 다면적 경제활동의 경우 어촌민박을 중심으로 한 어촌 관광이 중심이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농어가의 6차산업 항목별 수행 여부를 살펴보면

농수산물의 가공품 생산 및 직접 판매는 수행하고 있는 것이 없으나, 숙박·음식·체험활동 등의 농어촌 관광은 29.0%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수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영농·영어회사조합법인 등 조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3〉 농어가의 6차산업 항목별 수행 여부

단위: %

구분	농수특산물 가공품 생산	농수특산물 직접 판매	농어촌 관광 (숙박, 음식, 체험활동 등)
수행하지 않는다	100.0	100.0	71.0
개별적 수행	0.0	0.0	29.0
영농회사법인 등 조직으로 수행	0.0	0.0	0.0
기타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다면적 경제활동은 소득 증진에 약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9%가 소득 증진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11.1%는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다면적 경제활동이 소득 증진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마을 주민은 없었으며,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11점으로 조사되었다.

다면적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운영할 의사에 대해서 40.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참여할 생각이 없는 주민은 22.7%, 보통이다 22.7%, 참여하겠다는 13.6%로 나타났다. 이는 다면적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 주민이 약 70%라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저조한 참여율이 참여 의사의 저조함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다면적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 주민의 50.0%는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농수축협 조직에서의 참여가 25.0%, 정부지원 없이 마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이 16.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시방리 마을의 다면적 경제활동 방식이 민박 형태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표 2-84〉 다면적 경제활동

단위: %

구분		승언8리(n=15)
다면적 경제활동의 소득 증진 도움 정도(n=9)	큰 도움이 된다	11.1
	약간 도움이 된다	88.9
	보통이다	0.0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0.0
	합계	100.0
다면적 경제활동 참여 및 운영 의사(n=22)	매우 그렇다(구체적 계획이 있다)	0.0
	그렇다	13.6
	보통이다	22.7
	아니다	0.0
	전혀 아니다(참여할 생각이 없다)	22.7
	잘 모르겠다	40.9
	합계	100.0
다면적 경제활동 수행방식(n=12)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마을 공동으로 수행	8.3
	개별적으로 수행	50.0
	영농(영어)회사법인·어촌계 등 조직에 참여	0.0
	농수축협 조직에 참여	25.0
	정부지원 없이 마을 공동으로 수행	16.7
	없음	0.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5.2.4. 공동체-기반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의 공간적 범역

시방리 마을 주민의 62.0%는 참여하는 경제조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38.0%만이 어촌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방리 마을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마을활동은 마을공동시설 운영과 공동어업활동이다. 공동생산활동이나 마을 공동 6차산업, 기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계가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어업활동방식 외의 특별한 마을활동은 없으나 이마저도 마을 주민의 82% 이상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85〉 시방리 마을 가구별 참여 경제조직

단위: %

구분	시방리(n=50)
어촌계	38.0
지역 농수협	0.0
작목반	0.0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0.0
협동조합(농수협 이외)	0.0
마을기업 혹은 마을공동체회사	0.0
산림계	0.0
생협(아이쿱, 한살림 등)	0.0
사회적 기업	0.0
부녀회	0.0
없음/무응답	**62.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표 2-86〉 시방리 마을 가구별 마을활동 항목별 참여 수준

단위: %, 점

구분	전혀 참여 안 함	참여 안 함	보통	참여	거의 매번 참여	모름/무응답	5점 평균
마을공동시설 운영	**74.0**	8.0	16.0	2.0	0.0	0.0	1.46
공동어업활동	**70.0**	12.0	16.0	2.0	0.0	0.0	1.50

주: n=5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시방리 마을의 공동경제활동에 대해 마을 주민의 54.0%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약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0.0%, 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6.0%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6.0%에 불과하였다. 5점 평균은 3.54점으로 나타났다. 어촌계의 공동어업활동 및 마을공동시설 운영은 어촌 마을에서 가정경제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가정경제에 약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0.0%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어업활동이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2-87〉 시방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가정경제 도움 정도

단위: %, 점

구분	시방리(n=50)
큰 도움이 된다	4.0
약간 도움이 된다	50.0
보통이다	36.0
도움이 별로 안 된다	6.0
전혀 도움이 안 된다	0.0
잘 모르겠다	4.0
모름/무응답	0.0
합계	100.0
5점 평균	3.54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그러나 시방리 마을의 공동경제활동은 과거에 비해 침체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년 전과 변함없이 저조하다는 응답이 48.0%, 5년 전에 비해 침체되었다가 38.0%로 전체 마을 주민의 86.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렇게 볼 때 전통적 마을 공동경제활동을 벗어나 다면적 경제활동 등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

〈표 2-88〉 시방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과거(5년 전) 대비 변화

단위: %

구분	시방리(n=50)
5년 전에 비해 활발해졌다	0.0
5년 전과 변함없이 활발하다	0.0
5년 전과 변함없이 저조하다	48.0
5년 전에 비해 침체되었다	38.0
잘 모르겠다	14.0
모름/무응답	0.0
합계	100.0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시방리 마을의 공동경제활동은 대체적으로 마을 발전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조사되었다. 응답 주민의 42.0%는 마을 공동경제활동에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32.0%는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5점 평균은 2.34점이었다.

〈표 2-89〉 시방리 마을 공동경제활동 마을 발전 도움 정도

단위: %, 점

구분	시방리(n=50)
크게 도움이 된다	0.0
약간 도움이 된다	**32.0**
보통이다	**42.0**
도움이 별로 안 된다	4.0
전혀 도움이 안 된다	6.0
잘 모르겠다	16.0
모름/무응답	0.0
합계	100.0
5점 평균	2.34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긍정적 영향은 다양하나 특히 마을 노인과 저소득가구 등의 복지 혜택 증가(4.20점), 마을 주민 사이의 교류 증대와 관계 회복(4.16점), 마을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4.04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90〉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긍정적 영향(N=50)

단위: 점

구분	5점 평균
마을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	3.82
마을 주민 사이의 교류 증대와 관계 회복	**4.16**
마을 노인과 저소득가구 등의 복지 혜택 증가	**4.20**
마을에 살러 온 귀농어·귀촌인이 증가함	3.94
마을의 생활환경이 개선됨	3.96
마을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	**4.04**
마을 브랜드 가치 향상 혹은 홍보 효과	3.86

자료: 주민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볼 때 시방리 마을의 공동경제활동은 전통적 방식의 공동어업활동을 통해 마을 노인과 저소득가구의 복지 혜택이나 주민 간 화합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들과는 오히려 갈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사업에 참여할 주민도 부족하거니와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역량 미달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5.2.5. 정부 정책과 경제활동과의 관계

이수도 마을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선상낚시 및 자망, 통발 등에 대한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사업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생산한 수산자원을 활용하여 각종 체험 등을 관광상품화하고 있다.

이수도 어촌체험마을은 과거 활성화가 되지 않았으나, '1박 3식'으로 불리는 어촌민박이 입소문을 타면서 마을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불어 활성화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은 선상낚시 및 자망, 통발 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선상낚시 및 자망 등은 비용이 비싼 편이라 보다 대중적인 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의 유치가 필요하다. 어촌체험마을은 어촌민박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다수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어촌체험마을 시설 중 식당이 미흡하여 중·대규모의 체험객 유치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5.3. 시방리 마을의 경제활동 전망과 시사점

5.3.1. 시방리 마을 경제활동의 특성 요약

시방리 마을은 거제도 동쪽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도선을 통해서만 입도할

수 있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의 불편함은 어촌마을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문에 마을의 소비활동에 있어서 교통비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다른 어촌 마을에 비해 생활비와 주거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조건의 불리함을 가지고 있다.

마을 경제활동은 전통적으로 어선어업이 활발했으나, 수산자원의 생산량 감소와 기후 변화 등으로 어촌민박 등 어업 외 사업소득으로 어업과 관련한 비어업 경제활동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마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트렌드에 맞추어 1박 3식이라는 형태의 숙박과 식단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하였으며, 방송과 미디어의 관심으로 성공리에 정착되었다. 비수기 주말에는 100~200명의 관광객이, 성수기의 경우 300~4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1박 3식의 가장 큰 경제적인 이점은 마을의 민박과 마을의 수산업이 결합하여 마을 내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소비가 생산과 동시에 소비됨에 따라 유통 관련 비용이 줄어들고, 신선한 수산물의 제공이 가능해 소비자 만족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지명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1박 3식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어촌체험마을사업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3.2. 시방리 마을 경제활동의 전망과 계획

이수도 마을 찾는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도선을 이용한 섬의 특성상 섬의 수용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1박 3식의 매력적인 관광상품은 수산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3식의 다양성이 제공되는 한 재방문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1박 3식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수도의 1박 3식 시스템에는 잠재된 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현재 3식 중 1식은 각종 수산물로 거나하게 제공을 하는데 수산물의 특성상 계절적 영향이 강하

고 기상 등 수산물 생산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급이 안 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역의 수산물 생산량 저하와 마을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또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둘째, 1박 3식을 운영하고 있는 민박과 숙박 제공만 하는 민박 간의 갈등의 소지가 존재한다. 아직은 마을 공동체인 어촌계가 중심이 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으나 현재의 운영체계는 만들어진 지 3~4년의 초기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이 적어 갈등이 증폭되지 않은 점도 있다. 향후 경제적인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질 경우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도 이수도 내에는 둘레길, 전망대, 의자 등을 산책 코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섬이 작아 입도 이후 산책프로그램 외에는 또 다른 체험거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체험활동에 대한 문의가 많으나 기존 낚시체험은 20만 원 이상으로 비용적인 부담이 높아 바지선 등을 이용한 간단한 낚시체험공간 등의 추가적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3.3. 정부 정책의 방향

이수도 마을 사례를 통한 정부 정책 방향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작은 도서 마을의 자연부락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1박 3식을 통해 경제활동의 다양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어업을 위주로 하는 어촌마을이며, 이장이 있으나 마을의 행사 등에 대한 비용이 거의 어촌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은 어촌계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령으로 인하여 어업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어촌계원으로 배당을 받고 있으며, 비단 어촌계원이 아닐지라도 마을 주민들에게도 일정 부분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는 단일부락으로 형성된 어촌 마을의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수도 마을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촌계가 단순한 경제공동체가 아닌 마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회문화적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공동

체 유지를 위해 어촌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어촌계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 부락의 폐쇄적 입장에서는 마을의 긍정적인 발전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마을에 많은 빈집이 있으나 외부인에게는 판매를 꺼려하고 있으며, 관리가 되지 않아 경관에 나쁜 영향을 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 도서·어촌 마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마을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마을로서 이수도의 형태를 다른 지역에서 또한 수산업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 3 장

연구 결과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1.1. 사례 마을의 경제활동 특성

도서·어촌 마을 주민의 평균 연령은 65.7세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평균 마을 거주기간은 49.8년이다. 도서·어촌의 평균 가구원 수는 1.95명으로 전체 평균 2.03명에 비해 0.08명 적다. 가족 관계는 전체 농어촌 마을에 비해 부부로 이루어진 형태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상업이 발달하거나 경제다각화를 통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어촌 마을의 경우에는 자녀, 부모/시부모 등 여러 세대로 구성된 가족관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백미리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여성 비율이 더 높으며, 이는 전체 농어촌 마을에 비해서도 마찬가지다.

농어업 유형의 경우 승언8리 마을은 비농어업 경제활동이 중심이 되며, 중장5리 마을은 마을어업과 연근해 어선어업 중심에 밭농사 겸업 유형, 시방리 마을은 밭농사와 연근해 어선어업 중심 유형, 백미리 마을과 동호리 마을은 전형적인 반농반어 유형이나 백미리 마을은 마을어업이 중심이 되는 어업 중심의 반농반어 유형이며 동호리 마을은 농업 중심의 반농반어 유형이다.

도서·어촌 마을은 전체 농어촌 마을과 비교했을 때 가구의 주요 경제활동으로 농림어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 도서·어촌 마을 내에서는 승언8리 마을은 자영업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시방리 마을은 자영업과 주부/학생/무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가구 소득규모는 연간 1,000만~2,000만 원대 총수입이 가장 많은데, 마을 유형에 따라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승언8리, 중장5리 마을은 5,000만~1억 원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농어촌 마을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중장5리는 1,000만~2,000만 원 가구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마을 내 소득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승언8리와 중장5리의 경우에는 관광객이 마을의 주요 소득 기반이 되거나 관광을 통한 마을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이 가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언8리, 중장5리, 시방리는 농어업을 통한 소득이 높은 마을이며, 승언8리와 백미리는 비농어업사업소득이 높은 마을이다. 5년 전과 대비해 도서 어촌 마을은 대체적으로 연 500만 원 내외로 소득이 소폭 감소하고 있다. 주 소득 감소원은 마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백미리와 동호리는 농어업소득의 감소, 승언8리와 시방리는 비농어업사업소득의 감소가 눈에 띈다.

향후 경제소득 전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사되었다. 농어업 외 경제활동 의향도 대체적으로 없으나, 백미리와 동호리는 의향이 있었다. 이는 마을 유형과 관련이 있는데, 백미리의 경우 농림어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동호리는 자영업과 판매/영업/서비스업에 관한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백미리 마을은 어촌계 중심의 성공적인 마을 활성화의 결과이며, 동호리는 어업 쇠퇴로 인한 타 직종 전환 및 동호해수욕장 관광객 대상의 자영업 전환으로 분석된다.

소비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도서·어촌 마을은 대체적으로 1,000만~3,000만 원의 소비 규모를 가지는 것을 조사되었다. 시방리 마을의 경우 1,000만 원 이하가 72%일 정도로 소비지출이 작았는데, 이는 도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마을의 상업적 활성화가 강한 도서·어촌 마을일수록 소비지출 규모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백미리와 동호리 마을은 소비지출 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어촌 마을의 소비활동 비중이 높은 항목은 의료비이다. 전체 농어촌 마을의 소비지출 항목 1순위가 생활비임에 비해 도서·어촌 마을은 도서지역인 시방리 마을을 제외하고 모두 의료비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동호리 마을의 경우 61.3%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승언8리는 주거비와 교육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토지비용이 비싸고 자영업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이다. 시방리는 주거비가 매우 낮은 대신 생활비와 교통비의 비중이 높은데 도서지역이라는 여건의 불리함이 작용한 까닭이다.

도서·어촌 마을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현재의 농어업 활동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다. 도서·어촌 마을의 경우 마을어업을 통한 단순 채취를 통해서도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고령자가 많은 어촌 마을의 경우 농어업 활동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동호리는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반영하듯 농어업 활동을 그만두겠다는 의견과 확대/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어업 후계자의 경우 도서·어촌 마을은 승언8리와 백미리를 제외하고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체 농어촌 마을에 비해서도 큰 격차가 있어 미래 세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언8리와 백미리는 농어업 소득이 높아 후계자를 준비한 경우가 많았다. 도서·어촌의 경우 어촌계의 어업경영권이 자녀 승계가 가능하므로 어업소득이 확실한 경우 자녀 승계의 경우가 많았다.

농어업 관련 6차산업은 사업의 형태에 따라 마을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산 가공품 생산은 중장5리와 백미리, 수산물 직접 판매는 승언8리, 중장5리, 백미리, 동호리, 농어촌 관광은 승언8리, 중장5리, 시방리, 백미리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백미리와 중장5리는 6차산업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영어방식의 시도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승언8리는 유명한 관광지가 위치한 마을로 관광과 횟집에서의 수산물 판매가 어업보다 더 중심이 되고 있으며, 시방리는 섬을 활용한 어촌민박 및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호리는 동호해수욕장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산물 판매를 하고 있다. 6차산업 등 다면적 경제활동은 가구 소득 증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서·어촌 주민들은 전체 농어촌 마을에 비해 다면적 경제활동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제활동에 만족하는 경우와 고령 주민이 많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면적 경제활동을 원하는 경우는 마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장5리는 어촌민박, 수산 가공품 생산, 낚시터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마을 내 펜션의 증가, 6차산업 추진, 가두리낚시터의 활성화가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시방리는 어촌민박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는 1박 3식을 통한 마을 활성화가 작용하였다. 동호리는 직거래 및 직판장 운영 의사가 높았는데, 어촌계가 마을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판매 위주라 이를 활성화시키고 싶어 하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백미리와 중장5리 등 기존의 마을의 다면적 경제활동이 성공적인 마을에서는 어촌계 등 조직 참여를 원하는 비중이 높으며, 승언8리와 시방리처럼 자영업이나 어가민박의 경우에는 개별 수행 의사가 높았다. 상대적으로 침체된 동호리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사업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마을의 현재 실정을 반영한 유형별 다면적 경제활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도서·어촌 마을의 주된 경제조직은 역시 어촌계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어촌계가 중심이 되면서도 마을 유형에 따라 경제조직의 유형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승언8리는 어촌계보다 먼저 조직된 영어법인에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중장5리는 마을기업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다.

도서·어촌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활동은 마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어촌계가 있는 도서·어촌 마을인 만큼 공동어업활동은 모든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의 마을활동은 도서·어촌 마을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참여도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중장5리와 백미리는 다양한 마을 공동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승언8리는 참여도가 매우 낮다.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마을은 마을 사업의 추진이 활발

할 뿐만 아니라 공동경제활동을 통한 성과가 뚜렷하고 마을 주민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득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마을이다. 이에 비해 승언8리는 이해관계에 따라 마을 주민 간 갈등이 있어 마을 공동사업의 추진이 여의치 못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도서·어촌 마을의 공동경제활동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농어촌 마을 전체 응답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1.1%인 것에 비해 도서·어촌 마을은 67.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도서·어촌 마을의 공동경제활동은 여전히 어촌계가 중심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회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도서·어촌 마을에서의 공동경제활동 참여는 마을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확보와 동시에 어촌계원으로서 마을 어장에서의 어업권을 보장받는 행위가 되므로 도서·어촌 마을 주민에게서 마을 공동경제활동은 가정경제와 마을 발전,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확인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는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도서·어촌 마을 주민의 72.2%가 응답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전체 농어촌 마을의 경우에는 같은 문항에서 27.7%만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도서·어촌 마을의 공동경제활동은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도서·어촌 마을은 전체 농어촌 마을보다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도서·어촌 마을의 공동경제활동은 특히 마을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 마을 노인과 저소득가구 등의 복지 혜택 증가, 마을 브랜드 가치 향상 혹은 홍보 효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마을 주민 사이의 교류 증대와 관계 회복, 마을 생활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마을에 살러 온 귀농·귀어·귀촌인의 증가는 원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여 이주민들의 도서·어촌 마을에 대한 이해 및 적응을 위한 선행 교육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어촌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은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 간 합의가 쉽지 않아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이다. 도서·어촌 마을의 경우 어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귀촌인들과 원주민 간 갈등, 어업 관련 경제활동

주민과 비어업 관련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 간 갈등의 문제가 주요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마을 주민 간 수익이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문제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꼽히는데, 이는 도서·어촌 마을에서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사업 추진에 있어 추진주체가 어촌계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 비어촌계원과 귀촌인 등이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어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촌계의 마을 규범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에만 참여하려다 어촌계로부터 배척당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1.2. 사례 마을의 경제활동 변화 전망

도서·어촌 마을의 마을 경제활동은 도서·어촌 마을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계획과 전망을 가지고 있다. 백미리 마을은 해양수산부 및 화성시의 예산 지원을 통해 3,000평 부지의 워터파크 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의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백미리 캠핑장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마을 경제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연꽃호수 조성 및 마을 정보화마을 사무실의 카페 리모델링 등 자부담의 비율을 높인 다양한 투자 사업을 계획, 추진 중이다. 수도권에 인접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백미리 마을은 수산가공과 유통, 판매, 어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의 다면적 경제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사업의 중심이 되는 추진주체가 어촌계가 됨으로써 마을 주민의 단합과 함께 추진력을 담보하고 있다.

중장5리 마을은 마을 경제활동이 마을 어장을 이용한 공동생산의 비중이 높아 어촌계의 역할이 매우 크며, 어촌계가 경제적 역할뿐만 아니라 마을 내 사회문화적 기능도 함께 수행하며 마을 주민의 단결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어촌 6차산업화시범사업은 정책적 지원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6차산업화센터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가공생산품의 판매가 미흡하여 성과가 저조해 향후 마을 갈등의 요지가 될 수 있다. 마을 고령화의 심화는 노동력 확보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이주노동자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귀어·귀촌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부지 협소와 땅값 상승이 귀어·귀촌인의 유입을 막고 있으며, 유입된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도 잠재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동호리 마을은 마을 어장의 상실에 따른 조직만 남은 어촌계가 마을의 공동체성을 지키는 사회문화적 기능은 하고 있으나 특별한 공동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한정면허를 얻은 어촌계의 마을 어장도 현재는 동호해수욕장 중간에 위치해 활발한 생산활동을 할 수 없어 개별생산활동에 치우쳐 있다. 젊은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 관리를 통한 마을 어장 조성과 활용으로 어촌계의 공동생산활동을 늘여나가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추가 지정을 계획 중인 동호항 일대의 마을 어장 한정면허 지역은 기존 한정면허 어장에 비해 관광지와 분리되어 있고 어항 접근성 또한 좋아 향후 동죽, 가무락 등 종패사업을 통한 마을 어장 형성 계획이 추진 가능하다. 수산업 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동호리 마을은 침체된 어업 및 마을 주민 고령화 등으로 어업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재활성화 전략의 성공 여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동호리 마을 사업의 성공 여부는 현재 추진 중인 마을 어장의 수산자원 생산량 증대를 통해 마을 경제활동의 성과가 마을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방리 이수도 마을을 찾는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도선을 이용한 섬의 특성상 입도할 수 있는 인구가 한계가 있어 지속가능한 섬의 수용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어촌민박의 1박 3식 프로그램은 수산물이 중심이 되어 계절에 따른 3식의 다양성이 제공되는 한 재방문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산물 생산량 저하와 마을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딛고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와 개별적으로 수행 중인 어촌민박의 잠재적 내부 갈등 문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상품의 부족은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다. 이는 현재 시방리 이수도 마을의 어촌민박이 마을의 공동경제활동이 아니라 섬 내 일군의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수도 어촌계

의 마을 내 영향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어촌계가 어촌민박과 어떠한 연계전략을 이루어내는지가 향후 어촌민박 프로그램의 장기적 지속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승언8리 마을은 상업화로 어촌 마을의 특징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어선어업과 마을어업이 어촌계 조직을 통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어촌계의 마을 어장에서 해삼, 전복, 바지락 등의 공동 채취활동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협을 통한 유통과 직판장 비율이 높아 주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산업보다 자영업이 중심인 승언8리의 특징상 어촌계는 마을의 구심점이라기보다는 자영업을 위한 수산물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생산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음식점과 더불어 펜션 등 숙박시설을 통한 소득이 높으나 펜션의 증가에 따라 경쟁이 증가하였다. 펜션의 운영 역시 직영이 아닌 임대가 많아 이윤을 위한 임대료 상승이 관광객 감소와 마을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져 주민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시작해 자영업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수산업의 경우 여전히 주요한 경제활동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어업활동이나 유어낚시어선으로의 전환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잠어업을 중심으로 종패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어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군과도의 주요한 관광지인 만큼 사구복원 및 연안정비 등 다양한 보전 정책은 계속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도서·어촌 마을은 마을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마을 공동경제활동 방식을 시도하며 분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어촌 마을의 경제활동 변화 방식의 공통적 특징을 통해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몇 가지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순 어업으로부터 수산물을 관광과 연계한 다면적 경제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어촌계의 마을 어장으로부터 수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수산물의 가공품 생산, 어촌 관광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및 어촌민박에의 수산물 공급 등 6차산업화를 통한 소득 창출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도서·어촌 마을 유형에 따라 성과의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마을 공

동경제활동의 중심은 어촌계이다. 어촌만의 특별한 조직인 어촌계는 마을어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어장의 어업면허를 가진 어촌계원만이 어장에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때문에 어촌계가 가진 영향력은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활성화와 마을 발전에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셋째, 마을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고령화 문제는 노동력 부족과 함께 어업경영권을 가진 어촌계원의 소멸과 직결되어 도서·어촌 마을에서의 어업 소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서·어촌 마을의 소멸로도 연결될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의 의료비가 주요한 소비지출 항목일 만큼 도서·어촌에서의 고령화는 심각하며, 어선어업의 경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어촌 미래세대를 양성할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도서·어촌 마을 사례를 통한 정부 정책 방향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어촌 마을의 다면적 경제활동은 가구 소득과 마을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관광과 연계한 다면적 경제활동은 가구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 도서·어촌 마을의 다양한 마을 자산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다면적 경제활동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마을 사업의 추진주체의 영향력과 마을 주민과의 신뢰가 중요하다. 마을 사업이 활성화된 도서·어촌 마을의 경우 어촌계가 사업의 추진주체임과 동시에 마을 주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업 추진의 동력과 함께 다양한 의사결정사항에서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위임을 얻게 한다. 특히 도서·어촌 마을은 전통적인 어촌계가 마을 공동경제활동 및 추진사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 어업의 공동생산과 연계할 수 있는 특장점을 가질 수 있다.

셋째, 도서·어촌 마을의 경제활동사업은 어촌계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어촌계는 마을에서 공동어업생산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내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사회문화적 기능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어업이 활성화된 도서·어촌 마을을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어업이 침체되거나 주민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마을에서도 어촌계의 존재는 도서·어촌 마을의 최소한의 사회통합 기능을 유지시키는 보루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을 펴기에 앞서 어촌계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서·어촌 마을 경제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어업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어촌계가 마을의 구심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은 도서·어촌 마을 경제활동의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다면적 경제활동은 어업 관련 경제활동이든 비어업 관련 경제활동이든 어업과 연계되는 바탕 위에서 지속성을 유지하기 쉽다.

다섯째,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지지와 신임은 마을 주민이 마을 소득의 진전을 체감할 때 뒤따른다. 마을 공동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이 마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주민들이 체감할 때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추진주체인 어촌계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인 지지가 뒤따를 수 있다.

여섯째, 도서·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의 양성이 절실하다. 고령화는 전술했듯이 노동력 부족뿐 아니라 어촌 인구의 감소로도 직결된다. 이주노동자 등 어업노동력의 단순 확보를 넘어서 마을에 삶터를 꾸릴 수 있는 어촌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귀어·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촌계 가입 장벽, 어촌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 등이 잠재해 있어 미래세대의 양성은 단순한 인센티브 정책으로는 역부족이다.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도서·어촌 마을의 경우에는 귀어·귀촌을 원하는 수요에 비해 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주택이나 부지가 너무 비싸며, 침체되어 있는 마을의 경우에는 수요가 없거나 수요가 있어도 일자리가 없다. 일률적인 귀어·귀촌 정책보다는 마을의 실정과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귀어·귀촌에 앞서 도서·어촌 마을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어업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활성화가 곧 도서·어촌 마을의

발전은 아니다. 비어업 경제의 활성화가 마을의 경제적 소득 증가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과도한 상업화와 자본의 집적은 도서·어촌 마을의 공동체성을 해체시키고 장기적으로 어업의 쇠퇴를 가져오기도 한다. 도서·어촌 마을의 상업적 성공은 도시화와 함께 어촌다움을 상실케 한다.

부 록

테마 조사: 다면적 경제활동 기반 공동체 발전을 통한 도서·어촌 마을 공동체 발전 방향

1. 연구 배경

농어촌 마을은 마을 주민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과 과소화가 심각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특히 도서·어촌 마을은 농어촌에 일부 통합되어 파악되는 현실과는 달리 그만의 독특한 특성도 가지고 있다. 어업은 마을의 가장 주요한 경제활동이며, 도서·어촌 마을에는 어촌계라는 독특한 경제조직이 있어 어촌계의 구성원이 아니면 마을 어장에서 어업을 할 수 없다.

이는 도서·어촌 마을의 정주, 경제 등 다양한 여건의 변화와 함께 도서·어촌 마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어촌계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어업은 수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원칙적으로 어촌계 공동으로 이루어지며 어촌계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수산자원이 변화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한정된 어장에서의 수산물 생산은 어촌계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른 소득도 변화하게 된다. 어촌계원의 수가 늘어날 경우에 어촌계원에게 할당되는 몫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촌계원들은 마을 어장에서 어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어촌계원의 유입을 반대하는 성향으로 어촌계는 개방적이라기보다는

폐쇄적인 조직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마을 고령화 심화는 마을 내 미래세대 양성을 필요로 하나, 어업은 어촌계 가입부담금, 어구·어선 비용 등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비용이 많고 기술 습득도 어려울 뿐 아니라 어촌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주민 간 갈등도 나타나기도 하여 정착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어업 및 어업소득의 감소세도 도서·어촌 마을의 문제 중 하나다. 변화하는 대외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서·어촌 마을은 어업 외에도 다양한 경제활동과 연계한 다면적 경제활동 통해 마을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시도하고 있다.

백미리 마을은 어업과 관광, 체험을 연계하여 마을 발전을 이루어낸 사례다. 어촌계 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사업별 적합한 인적자원을 유입하거나 배치하여 정부의 정책사업 경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 낸 백미리의 사례를 검토하고 정책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백미리 마을의 경제활동 전개과정

전형적인 반농반어를 하던 작은 어촌 마을이 변화를 일으키게 된 시작은 화성방조제의 건설이다. 방조제의 건설은 수산자원의 변화와 감소를 일으켰고 이는 어업인들이 수확하던 수산물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 생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 기반의 축소는 마을 주민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즉 어촌체험마을 등 다면적 경제활동을 대안으로 생각하게 되는 근본적인 계기는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한 마을 경제활동의 위기였다. 외부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어업방식의 변화를 초래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마을 경제활동에 있어서 전통어업이 아니라 관광과 체험을 병행하는 새로운 경제활동의 방식을 선택하게끔 만들었다.

백미리 마을은 일반적인 도서·어촌 마을과는 다르게 어촌계 가입이 자유롭다. 어촌계의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귀어·귀촌을 원하는 외부인의 유입도 많다. 10여 년 전 55명에 불과했던 어촌계원도 124명으로 늘었다. 어촌계의 개방 정책은 외부인의 아이디어를 마을의 공동경제활동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인 효과를 주었다. 한편으로 어촌계의 개방 정책은 마을 주민 스스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백미리 마을은 어항이 없는 어촌으로서 어선어업이 아니 마을 어업에서 어업소득을 올리는 마을로서 수도권에서 가깝고 해안선과 갯벌이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다. 어업소득원의 한계, 수산물 판매의 비효율성 등으로 마을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던 차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 계기로 어촌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대표적 어촌마을이다. 어촌체험마을 상품으로 바지락 캐기, 망둑어 낚시, 스킨스쿠버 다이빙 체험, 무인도 탐사, 해양생물 현미경 관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마을 앞 400ha가 넘는 갯벌은 백미리 어촌계 주민의 생활터전이자 주 소득원이다.

백미리 마을은 어촌과 농촌이 한데 뒤섞인 반농반어의 마을이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관광객 증가를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반면, 인위적인 마을 개발은 의도적으로 자제하였다. 이 때문에 자연의 보존과 함께 시골 풍경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옛 경관의 유지와 환경보전을 통한 수산자원의 유지를 확보했다. 마을의 거의 유일한 인위적인 환경은 관광객을 위한 마을 주차장인데 여기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예산이 지원되었다.

현재 어촌계장은 2004년에 임명되어 13년째 어촌계장을 맡고 있으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마을 어장의 자율적 관리를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지속가능한 어업과 마을 어장에서 어촌체험의 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년 동안 어촌계가 자원량, 가격, 조업 기준 등의 자율 규제를 마을 내 강제 시행하면서 무분별한 남획을 막고, 수산물 판매수수료의 어촌계 자산화를 통해 마을 자산을 증가시켰다.

백미리 마을은 2005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시작하였으며, 2007년 정보화마을, 2007년 어촌체험마을에 지정되었다. 백미리 마을은 2009년 우수 체험마을로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어촌체험마을 대상을 수상 및 자율관리어업 모범공동체 및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에는 행정

안전부 주관 정보화마을 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하였다.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이전 마을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촌체험마을의 기본계획 및 구상안을 수립하였다. 이후 경기도와 화성시로부터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여 회의를 진행하며 운영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하였다. 타 어촌의 경우 바다의 매립으로 양식장이 황폐화되는 등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가 있기도 하였으나, 백미리 마을은 양식장의 보전을 통해 관광상품화 시킨 사례가 되었다. 이 때문에 체험객들이 양식장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업인에게 부가 소득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갯벌에는 체험을 위한 체험용 갯벌과 어업인의 어업을 위한 마을 어장의 갯벌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 부유식 화장실은 해수면의 변화에 따라서 갯벌에 내려앉을 수도 바다에 떠오를 수 있다. 갯벌 부지가 넓어 체험객들의 편의를 더하는 한편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1년 4월부터는 기존의 어촌체험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숙박과 연계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빠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느리고 자연친화적인 여행을 강조한다. 굴따기, 망둑어 낚시, 낙지잡이, 건강망 체험, 사두 체험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체험에 대한 가이드와 갯벌생태에 관한 문화해설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관광객의 증가로 마을 소득은 크게 증가하여 연매출은 50억을 훌쩍 넘으며, 어촌계의 자산은 공시지가만 해도 80억 원을 웃돈다. 수익은 어촌계 및 마을사업의 운영을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 마을 주민에게 고스란히 배분된다. 체험마을의 운영은 자연을 가능한 한 잘 유지하는 것에 있다. 처음부터 외부 지원을 바라기보다 우선 소신을 가지고 마을의 개성 있는 자원들을 찾아내고 살려서 키워나가고 있다. 다양한 시설이 복합된 복잡한 유원지의 개념보다는 가족 단위로 즐기는 자연체험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으로 백미리 마을의 특산물 중의 하나인 망둑어를 이용해 '망이둥이'라는 마을 캐릭터를 개발하기도 했다. 특히 망둑어와 카누타기를 결합한 어촌체

험상품은 청소년에게 체험의 재미를 주어 백미리 어촌체험마을의 대표상품으로 자리잡아 망둑어 마을 캐릭터는 백미리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등 특산물직거래에 활용되며 마을 공동체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마을 경제활동으로는 충분한 소득을 내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로 관광 등 소득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마을이 가진 개성과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백미리 마을은 이러한 점에서 선도적 어촌 역할을 하고 있다.

어촌계 진입장벽의 문턱을 낮춘 결과 외지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원주민과 이주 온 주민과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며, 외부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생업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과정이 어려울 경우에 지도자들의 고충이 커지기도 한다.

2016년부터 백미리 마을은 수산물 가공공장을 준공하였다. 국비, 시비, 자부담 등 총 10억 원이 투입된 공장은 영어법인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낙지꼬치, 간장게장, 새우젓, 새우장 등을 개발, 가공하여 판매를 준비 중에 있다. 가공공장에는 냉동, 냉장시설 및 바지락 세척선별기, 간장게장 포장기계 등이 구비되어 있다.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수산물 가공식품은 모두 백미리 마을 브랜드를 달고 판매될 예정이다. 그 뿐만 아니라 낙지꼬치는 식품기업인 한성과 협의 중이며, 간장게장, 새우장, 새우젓 등은 편의점에 납품을 협의 중에 있다.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마을 공동체가 주도가 되어 담당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마을 브랜드가 또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작용하며 판로를 확대해나가는 긍정적인 연쇄작용이 일어났다.

백미리 마을의 지도자는 어촌의 경쟁력은 천편일률적 사업 추진으로는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추진주체 역시 외부업체 위탁보다는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장기 계획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백미리 마을의 선택은 시설 투자 대신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에 두었다. 체험객에게 마을 주민이 직접 해산물을 잡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에 더해 채취한 조개류를 담을 수 있는 해감용 봉투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다. 어촌계가 함께 직접 마을어장인 갯벌을 청소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도 서비스 강화전략의 일환이다. 서비스 강화전략은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2016년 66억 원의 투자가 확정된 워터파크 조성사업 등 대규모의 투자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계원예술대 창업프로그램과 연계한 어르신 자서전 출간사업,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개판 축제, 할로윈과 연계한 유령 축제, 작업복 등이 중심이 된 마을 주민 패션쇼, 마을주차장에서 개최된 갯벌바다영화제 등 마을축제가 중심이 된 다양한 비어업 경제활동을 연계하여 마을을 홍보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정보화마을 교육장을 홍대를 벤치마킹해 카페로 리모델링한 것도 백미리 마을 공동체의 서비스 강화가 중심이 된 사업 아이디어다.

3. 백미리 마을의 변화 전망

어업의 3대 축은 어선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이다.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비중이 높은 어촌계는 어촌마을에 어항이 위치하고 있다. 어선어업 위주의 어촌계는 주로 국가어항 혹은 지방어항을 이용한다. 하지만 어선어업의 비중이 낮은 어촌계의 경우엔 어촌정주어항 혹은 소규모 포구를 이용한다. 그럼에도 백미리 마을은 이름은 포구가 있지만, 어항의 기능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어항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백미리 마을은 마을 어장에서 마을어업과 김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어촌으로서 2008년도에 시작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통하여 어촌소득원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마을어업 중심의 백미리 마을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마을의 소득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 가공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가공 김을 브랜드를 만들어 어촌체험마을 관광객에게 직거래 판매를 늘여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꽃게와 새우 등을 원재료로 하는 수산물 가공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수

산물 가공품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바지락, 낙지, 김 등은 마을 어장에서 생산하는 주요 수산물은 백미리 마을의 6차산업화의 토대이며, 김 가공 영어조합법인과 수산물 가공 영어조합법인은 2차산업의 중요한 조직이다. 어촌체험마을사업은 어촌관광사업으로서 3차산업의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백미리 마을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숙박업으로서 캠핑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수산물 판매 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백미리 마을은 어촌계장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마을 어장 중심의 낙후된 어촌에서 탈피하여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어 어촌 6차산업화의 모델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어촌 6차산업화가 완전한 체제를 갖추게 될 경우에 백미리 마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백미리 어촌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원의 다양화를 통한 소득 증가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위험도도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백미리 마을의 6차산업화 규모가 경영마인드를 가진 어촌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촌계장이 바뀔 경우에 후임 어촌계장이 역할을 전임 어촌계장의 역할 이상이 요구된다. 어촌계의 운영에서 6차산업화의 경영적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촌계장 중심의 6차산업화가 아닌 각 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유입이 무엇보다 필요할 실정이다.

4. 백미리 마을의 성공 요인

국가어항이 있는 궁평 마을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부도 마을 사이에 위치한 백미리 마을은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전엔 낙후 어촌으로 백미리 마을 주민은 궁평 마을과 제부도 마을을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현재 백미리 마을은 이웃의 어촌 마을은 물론이고 전국의 어촌 주민이 벤치마킹하고 싶은 어

촌 마을로 발전하고 있다. 낙후 어촌이 전국의 으뜸 어촌 마을로 변화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백미리 마을의 리더와 리더의 진정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차근차근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백미리 마을의 성공요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미리 마을의 휴먼웨어의 건실함은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마을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추진 시에 어촌계장을 맡고 있던 리더가 어촌 관광이 마을의 소득원 다양화는 물론이고 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확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책임자를 선정하여 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을 관리해온 결과 사업의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다. 특히 우수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을 스카우트하기 위하여 사무장의 능력에 맞게 임금 수준을 높여 우수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을 물색하고 발탁하여 어촌체험마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 마을의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변화시키는 관점이 다른 어촌 마을보다 특별하였다. 어촌 및 어항의 기반시설 마련을 위하여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다양한 시설의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떨어져 시설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커녕 유휴시설로 방치된 시설들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어촌계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백미리 어촌마을의 경우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어구창고와 마을복지회관을 각각 수산물 판매시설과 숙박 및 교류공간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마을의 보물단지로 전환하였다.

셋째, 백미리 마을의 사업 추진 방향은 소비자 지향적이다. 어촌체험마을 관광객이 편리하게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소비자 지향적으로 편의시설을 마련함과 동시에 상품도 즐겁게 어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갯벌체험 공간인 마을 어장은 어촌체험 안내공간으로 1km 떨어져 있어 이동식 화장실을 체험공간에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개체험 등은 체험객에게 지루함을 줄 수 있는 갯벌을 조개체험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며, 갯벌에 둑을 쌓아 카약체험과 연계하여 체험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또한 도시민의 커피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촌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마

을 주민과 관광객의 교류공간 및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가족중심의 관광패턴에 대응하여 캠핑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가족 관광객들이 어촌에서 숙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통합적 사업 추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각 과의 사업을 통합한 추진계획하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칸막이 행정의 폐해를 방지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소득복지과의 귀어·귀촌 정책, 수산물유통과의 가공 및 유통사업, 어촌어항과의 어촌관광사업, 그리고 휴양마을사업 등을 통합한 계획을 장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촌 6차산업화의 성공적 추진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다섯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백미리 주민의 신뢰를 토대가 된 상호 소통이 원활하다. 화성시의 해양수산과와 소통을 통하여 사업 추진상의 문제를 먼저 도출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방향을 전환하기도 하며, 마을 어장을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의 활용 혹은 철거 등을 마을 디자인 계획과 연계하는 등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어촌 주민은 공간의 활용 및 어촌계 진입 등에 배타적 성향을 띠지만, 백미리 마을은 개방적 사고를 갖고 있다. 귀어·귀촌인을 어촌계에 가입시켜 일정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맡기거나 맡길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준비함으로써 어촌의 인적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백미리 마을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하여 연 임대료 550만 원으로 10주택을 임대하여 어촌에서 1년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예비 귀어·귀촌인은 어촌 적응 및 소득창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어촌 주민은 귀어·귀촌인이 마을 적응 여부와 마을에서 인적자원으로 역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성공적인 귀어·귀촌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생과 지역주민의 교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대학생의 재능을 활용해 백미리 마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5. 정책 제언

어촌의 정책사업의 대부분은 어촌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사업은 사업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사업 추진주체, 사업 프로그램 등이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시초로 선도적인 어촌 발전을 실현하고 있는 백미리 마을의 성공요인을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의 새로운 사업 추진 시에 하드웨어의 신설을 결정하기 전에 기존 유휴시설의 용도전환을 통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공모투자사업의 경우에 유휴시설의 사용을 통한 사업예산 절감과 효율성 제고 가능성에 평가에 가점을 부과함으로써 유휴시설의 재활용은 물론이고 하드웨어 과다투자로 인한 관리 부실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어촌 투자사업의 투자효과는 우수한 자질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어촌에 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 사업 대상지 선정 시에 인적자원을 먼저 평가하여야 한다. 인적자원이 추진 사업의 경영에 적합한지,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사업경영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 인적자원의 유입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어장, 어촌과 어항의 자원과 공간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 어촌 발전 계획을 토대로 어촌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어장, 어촌, 어항 등 연안의 중요한 공간으로서 수산업은 물론이고 어촌의 중요한 사업 추진 공간으로서 해양수산부의 각 과에서 독립된 사업을 계획한다. 이러한 독립적 사업 추진은 공간과 자원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도 어려워 사업의 중복투자 혹은 비용 발생 가능성도 있다.

넷째, 어촌주민의 배타적 성향을 개방적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공유재 토대로 수산정책을 추진되고 있지만, 공유재는 어업

인 혹은 어촌 주민의 공유가 전제되어 있어 어촌 주민의 대부분은 배타적 성향을 갖고 있다. 어촌, 어항, 어장의 개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어촌 주민이 스스로 어촌의 공간과 자원의 개방 시도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귀어·귀촌인에게 어촌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 어촌계엔 인센티브로서 정부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 시에 가점을 부과하여 어촌의 개방을 유도하여야 한다. 어촌 개방은 어촌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입을 촉진시켜 어촌의 인적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용태. 2014. “정책-어촌의 6차 산업화 성공사례와 과제.”『어항어장』Vol. 107 No.- 한국어촌어항협회.

김준. 2006. “어업기술의 변화와 어촌공동체: 충남 개목리 굴양식 어촌의 사례.”『한극농촌사회학회지』16(1): 175-207.

민상기. 1998. “어촌공동체의 연안어업 점유와 이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광순. 1975. “한국어업공동체에 관한 연구: 성립과 전개형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금화. 1987. “김 양식 확대에 따른 어촌사회의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정석. 2001. “어업과 사회변화: 비진도의 사례연구.”『호남문화연구』제29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손은일. 2014. “어촌개발-어업의 6차 산업화 전략.”『어항어장』Vol. 105 No.- 한국어촌어항협회.

송경언. 2002.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와 공간이용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승우·박상우·김유진·이호림. 2015. “어촌특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향.” 연구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림. 2014. “어촌마을의 사회적 경제: 공유자원의 자율적 관리와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림. 2016.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의 조건.”『도서문화』Vol. 48 No.-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임관혁·구완희·이승철. 2014. “어촌지역 6차산업에 대한 주민의식조사연구.”『한국도서연구』Vol. 26 No.4 한국도서학회

정근식·김준. 1993. “도서지역의 경제적 변동과 마을체계: 소안도의 사례 연구.”『도서문화』11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정근식·김준. 1998. “어촌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연구.”『현대사회과학연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